

한국 YWCA

2020년 3·4월호
March · April
Vol.566



한국YWCA 창립 98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YWCA가 4월 20일 창립 98주년을 맞이합니다. 1922년 “암매한 여성사회에 빛이 되고자” 창설된 한국YWCA는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전국 53개 지역의 회원YWCA와 함께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YWCA는 창립 100주년 이후의 지속가능한 한국YWCA 운동과 건강한 시민사회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나라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0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경주 054.772.8141	서울 02.3705.6000	제주 064.711.8322	
고양 031.919.4040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명 02.895.1966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광양 061.762.0012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광주 062.609.1300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순천 061.744.7990	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대구 053.652.0070	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군산 063.462.4491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특집1 코로나19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코로나 쇼크 시대
코로나19 사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특집2 YWCA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누가 가장 고통받는가
전국 회원YWCA 코로나19 대응활동

여성
디지털 성착취를 끊어낼 행동하는 사유를 위하여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와 드라마, 전염병의 시대를 읽다



국가 위기, 기독교정신운동으로 '모든 고통을 함께'하는 YWCA



IMF 한파 이후 국가경제부도의 위기 속에서 실시한 외화 모으기 캠페인

1997년 외환시장에서 촉발된 경제위기로 국가경제부도의 위기를 맞이했다. 다행히 IMF 협정 이후 채무의 지불유예인 모라토리엄의 위기는 넘겼으나 외화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의 생존은 살얼음을 밟는 듯한 위급한 상황에 있었다.

1998년에 들어서 YWCA는 이러한 국난을 해결하고자 1월 12일부터 2월 21일까지 시민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경제위기극복과 시민개혁운동에 중점을 두고 40일간 '외화 모으기 캠페인', '외채 상환 금모으기 범국민운동', '달러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실직자와 그 가족을 돕기 위한 '하루 100원 저축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은 당시 2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들과

결식아동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대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

5월 12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전국의 YWCA 자원·실무활동가들이 발대식을 갖고 참석자들은 한 사람의 1년간 저축금액인 3만6천5백 원씩 일시불로 헌납하여 우선 100만 원을 모았다. 이 운동을 1년간 계속하기로 하고 전국 YWCA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시민이 동참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전국 각 농협점포에 모금함을 비치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이 확대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환위기사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긴급시민난단 'IMF 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전국에서 개최했다. 또한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노동부 지원을 받아 실직자를 위한 실업충격완화 및 재취업, 창업준비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제1차 실직자 교육에 이어 제2차는 7월, 제3차는 9월에 실직자 교육훈련을 실시했고, 갑자기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에게 실업충격을 완화시키는 방법과 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회원YWCA에서는 부모의 실직으로 점심을 거르는 결식아동들에게는 점심을 제공하고 방과후 학습지도를 해주었다.

1999년 3월부터 12월까지 여성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여성실직자를 위한 생활용품 재활용 공공근로자 사업'을 실시하여 보건복지부 공공근로사업비 60억 원을 지원받아 여성실업자를 기능별로 훈련시킨 후 2천 명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YWCA는 국가 위기 때마다 구국운동으로 국민의식을 높이고 극한 상황에 처해있는 어려운 이웃 돕기에 적극 나섰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Y의 이러한 활동들은 기독교적 희생정신과 봉사정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 '모든 고통을 함께'하는 기독교정신운동의 한 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출처_ 한국YWCA 80년사)

2020. 3·4 한국YWCA



표지이야기

대구YWCA는 53개 회원YWCA가 보내온 후원금과 물품으로 '나눔 꾸러미'를 만들어 의료진과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에게 전달했다. "53개 회원YWCA가 함께 하니 힘내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2020년 5·6월 주요일정

5월 15일(금)

은학의집 20주년 감사예배

5월 26일(화)

탈핵 불의날 캠페인

6월 18일(목)

사무총장비상협의회

6월 18일(목)

제1차 길위의 평화포럼

6월 19일(금)

2분기 어린이집협의회

제56권 제2호 통권 566호

2020년 4월 10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

발행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한영수 | 편집인 유성희

미디어소통위원회 김민주·김은주·백은경·이경순

이은혜·이하나·정선경·조한나

편집 배정미·이주영·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퇴계로18길 77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주)산사고하이테크 031)989-0800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6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요 믿음이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지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18세 선거권, 이제 시작이다 | 오은지
- 05 **말씀 묵상** 한국YWCA를 위한 정오 기도

특집1 코로나19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06 **특집①** 코로나 쇼크 시대 | 최강석
- 08 **특집②** 코로나19 사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 | 김정태

특집2 YWCA와 코로나19

- 10 **특집①** 팬데믹 시기, 누가 가장 고통받는가 | 이은영
- 12 **특집②** 코로나19 현장 한 가운데, 대구YWCA | 박선
- 14 **특집③** 전국 회원YWCA 코로나19 대응활동 | 편집실
- 19 **특집④** YWCA 애프터유 캠페인

- 20 **기후변화**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 입구와 출구는 같아 | 김현우

- 22 **선언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 23 **여성** 디지털 성착취를 끊어낼 행동하는 사유를 위하여 | 김보화

- 25 **성명서**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강간문화'를 종식하라

- 26 **평화** 한국인 디아스포라 '조선학교'를 바로 보다 | 최수산나

- 28 **미디어와 사회** 나무보다 숲을 보는 언론을 기대하며 | 김하정

- 30 **청년토크** n번방의 두려움 | 대학·청년YWCA 소통국

- 32 **이달의 현장 ①** 대학·청년YWCA전국협의회 총회 | 김수진

- 33 **이달의 현장 ②** 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 검은 목요일 온라인 캠페인' | 문윤희

- 36 **이달의 현장 ③**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 'YWCA 탈핵 불의날 온라인 캠페인' | 최지영

- 38 **이달의 현장 ④** YWCA 사순절 캠페인 | 김은영

- 39 **이달의 현장 ⑤** 총선대응 YWCA 유권자 온라인 캠페인 | 연합회 중점운동국

- 42 **크리스천의 눈으로 보는 문화** 영화와 드라마, 전염병의 시대를 읽다 | 김민주

- 44 **연합회 소식**

- 46 **회원YWCA 소식**



오은지

2020 Y-틴 전국협의회 회장, 수원YWCA Y-틴

18세 선거권, 이제 시작이다

2020년 4월 15일, 드디어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다.

청소년 선거권은 2002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진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우리나라도 만 18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구성원으로 정치참여가 가능해졌다. OECD 국가 35개 중 투표권을 만 19세로 제한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만 18세 이상이 투표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은 청소년이 대한민국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동안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다양했다.

그중 하나는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성숙의 기준은 무엇일까? 성숙한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과 미성숙한 청소년 꿈꾸는 세상은 얼마나 다를까?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라는 사회적 통념은 어쩌면 청소년을 대상화하는 어른들이 만든 생각으로,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어른들의 편협한 시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활약한 많은 사건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YWCA의 젊은 여성들이 일궈낸 많은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했던 일들을 볼 수 있다. 우리와 같은 나이에 농촌계몽운동으로 교육을 통해 사회운동을 전개한 최용신 선생님, 정신여학교 교사로 여성운동과 독립운동을 펼친 김필례 선생님은 우리와 같은 나이였다. 현재 매년 일본군‘위안부’, 탈핵, 청소년 인권, 역사 등 중점

운동을 정해서 사회 변화를 꿈꾸며 만들어가는 YWCA 청소년, Y-틴도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가 미성숙한가?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이야기하면 어른들은 이렇게 말한다.

“공부나 하세요.”

우리는 진정한 공부가 무엇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배움이란 학교에서 펜을 잡고 교과서를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를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하고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부’라고 생각한다. 학교 책상에만 앉아있는 것이 배움이라고 믿고 있는 어른들과 청소년들의 미래는 그 책상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청소년 선거권을 넘어 피선거권을 원하는 세상은 너무 거창한 꿈일까? 그동안은 어른들의 정치 세상에 청소년들은 참여할 권리가 없었기에 어떠한 의견도 내세울 수 없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주체는 어른들만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포함되며, 우리는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이다. 이제는 정치도 어른들만의 의견이 아닌 청소년들의 참여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2020년 4월 15일, 역사적으로 남을 청소년의 첫 투표와 참여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청소년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기도는 우리를 더 단단한 소망으로 붙들입니다

한국YWCA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올해 진행될 연합회와 회원YWCA의 재구조화 여정, 그리고 한국YWCA회관의 변화 과정을 위해 2월 21일(금)부터 9월 20일(일)까지 기간을 정해두고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한국YWCA’를 위한 정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정오 기도 8주차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 어찌해야할 바를 모르는 불안도, 나만 홀로인 것 같은 고독도, 사랑으로 사망까지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을 막지는 못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의 많은 생명들이 간절히 회복을 갈구하는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을 위해 오늘도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께서 만지시는 모든 생명들이 새로 회복되고 온전하여지길, 새롭게 나누고 격려하는 일에 사랑 깊은 마음이 담기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사명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덧 기도를 시작한 지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주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더 단단한 소망으로 붙들입니다. 행동으로 이끕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 면역이 약한 모든 분들이 잘 견뎌내도록, 치료와 회복을 위해 봉사하는 의료진과 모든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댈 곳이 없어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도록, 모임을 갖지 않더라도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정의, 평화, 생명의 지역을 만드는 일에 YWCA가 앞장서도록, 한국YWCA회관의 공사가 안전하게 마쳐지도록, 전국 YWCA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들이 매일 정오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공통 묵상 말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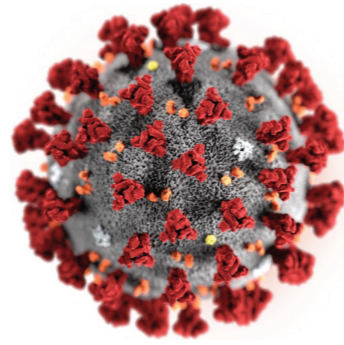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골로새서 1장 22-23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베드로전서 1장 21-22절).

| 공통 기도제목 |

-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시고, 확진자와 감염자들이 조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을 돌아보시고,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 의료진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 면역이 약한 모든 분들이 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소서.
-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게 하소서.
-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YWCA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깨닫고 실천하게 하소서.
- 53개 회원YWCA와 한국YWCA연합회가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함께할 주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 한국YWCA연합회 회관 공사를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시고, 이 회관이 평화와 사랑의 이야기가 꽃 피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쇼크가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던져놓은 숙제



미국질병통제센터(CDC)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미지. (출처 : 동아사이언스)

최강석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예기치 못한 신종바이러스의 출현

2020년 여태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팬데믹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코로나19 (COVID19) 쇼크에 걸려 혼돈과 공황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그 출발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인 중국의 후베이성에 위치한 인구 1,100만명의 대도시 우한 지역이었다. 우한은 중국의 교통 요지이자 양자강 강호 지역으로서 그 유명한 적벽 대전이 일어났던 지역이다. 대도시는 엄청난 인구의 숙주 밀집성과 인적 물적 교류로 연결된 전 세계의 초연결성이 만들어 낸 신종바이러스 핫 스팟의 지점으로, 대도시에서의 출현 그 자체가 바이러스가 창궐할 수 있는 이상적인 여건을 제공해 주며 팬데믹의 단초를 제공했다.

2020년 1월 1일, 중국 정부가 우한 재래시장인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을 전격 폐쇄하면서 전 세계 언론이 중국 우한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전형적인 신종바이러스 '블랙스완 현상'¹⁾이다.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을 봉쇄하는 초강력한 통제 조치를 취하면서 그제서야 국제 사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팬데믹 상황을 볼 때 상황이 조기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어찌 보면 국제 사회가 그동안 잠재해 왔던 신종바이러스 출현 위험요인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애써 무시해 온, 인류가 만든 재앙인지도 모른다.

중국에서 출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바이러스 유전자 족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박쥐를 주목하고 있다. 신속하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으로 박쥐를 지목하게 된 배경은 중국 과학자들이 그동안 중국 내 서식하고 있는 야생 박쥐들을 조사해서, 이들 야생 박쥐들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수집하여 분석해 놓았던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출현에 대한 책임을 박쥐에게 뒤집어씌울 수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문제가 된 중국 재래시장

최근 들어 사람에서 출현한 신종바이러스들은 대부분 야생 동물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넘어와서 바이러스 쇼크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러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배경에는 소위 '푸시 앤 풀(Push & Pull)'이라는 원리가 작동한다. 잠재적 신종바이러스를 가진 야생 동물이 그들의 서식지로부터 강제로 쫓겨나는 푸시(Push)와 그러한 야생 동물들을 사람들이 사는 영역으로 유인하는 풀(Pull)

효과가 신종바이러스 출현의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 준다.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의 재래시장이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수 있는 화약고로 지속적으로 주목되어 왔다. 2002년 사스가 재래시장에서, 2013년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 감염 사례도 재래시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왜 하필이면 이들 지역의 재래시장일까? 그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이 지역 사람들이 야생동물 고기를 보양식으로 선호하는 음식 문화에 있다. 그러한 야생동물의 공급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재래시장이다. 2020년 1월 22일자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드>에 실린 중국 재래시장 관련 기사를 보면, 다양한 가축 동물뿐만 아니라 박쥐, 여우, 오소리, 쥐, 고슴도치, 뱀, 사향 고양이 등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야생동물들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다. 기사에 따르면, 그 가게에서 고기로 판매하는 야생동물만 해도 42종이나 된다. 이들 야생동물들은 야산, 호수 등지에서 포획된 것이다.


이들 야생동물이 어떤 바이러스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각종 야생동물이 재래시장에 모여들게 되면서 야생 동물들이 가진 바이러스들이 뒤섞여 신종 바이러스가 생성될 수 있고, 도축하거나 도축한 생고기를 만지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재래시장 야생동물이 신종 바이러스를 배양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1월 우한 재래시장 내 야생동물 판매 가게에서 집중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중국 질병통제센터의 결과 발표가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박쥐의 바이러스가 중간매개동물을 거쳐서 오늘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출현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천산갑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어찌 되었건 야생박쥐를 포획해서 재래시장에서 팔지 않았다면, 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야생박쥐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마구 뿌리고 다니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다.

이번 사태가 국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21세기 들어서 신종바이러스의 위협이 계속되어 왔음에

도 국제 사회가 다소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도 없지 않다. 2002년 말 중국 광둥성 재래시장에서 출현하여 2003년 홍콩발 바이러스 공포로 몰아간 사스(SARS), 2009년 멕시코에서 출현해서 팬데믹으로 이어진 신종플루, 2012년 중동지역에서 출현하여 2015년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메르스(MERS) 사태까지, 국제 사회가 신종 바이러스 위협들에 나름대로 선방해 왔던 과거의 경험 법칙이 그러한 스탠스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일조하지 않을까?

몇 달 동안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도 쉬지 않고 언론의 기사를 도배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안심의 영역>을 넘어 <안전의 영역>까지 급속히 악화되면서, 국경 통제, 입국 제한으로 여행사도, 항공기 회사도 파산하고 있다. 다중 이용시설을 피하게 되면서, 사람이 모여야 영업을 할 수 있는 모든 경제활동이 직격탄을 맞았다. 전염병 유행으로 공중보건의 위기가 만들어낸 신체와 행동의 자유가 또 다른 제한과 규제를 만들고, 그 제한과 규제가 또 다른 제한과 규제를 만들고, 그렇게 반복적이고 연쇄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옥죄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는 한 이 사태는 장기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전 세계적 유행을 잠재우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국제 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잠재울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신종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신종 바이러스 특성상 언제 어디서 출현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지금과 같은 신종 바이러스 출현 이후 사후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야생 생태계 위협요인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출현 경로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 (특히 야생동물 음식문화)를 통제하는 방안, 신종 바이러스 출현 시 조기에 통제하는 사회 시스템 개선 등 측면에서 어떠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가져야 할지 국제 사회가 반성과 성찰을 가져야 할 때다. 

1) 블랙스완이 유명해진 것은 레바논 출신의 미국 투자전문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쓴 『블랙스완』 때문이다. '블랙스완'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몰랐던 사건', '극단적으로 충격이 큰 사건', '예측은 불가능하고 나중에 돌이켜보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의미한다. 나심 탈레브는 세상의 변화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누적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블랙스완'을 예측하지 못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출처 : 인저리타임)



모든 생명이 행복한 문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김정태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사랑누리교회 담임 목사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근무에 투입되는 의료진이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3.2. (출처 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ondol@yna.co.kr)

올해는 사순절을 나기가 유난히 힘이 듭니다. 이전에도 사순절에 슬픈 일들이 많이 생겼지만 이번처럼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회 모든 분야를 폭군처럼 손아귀에 꼭 틀어쥐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중심의 문명에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문명으로 속히 전환하라는 경고입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드는 일이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일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창궐하는 원인으로 인간이 동식물의 영역을 침범하여 일어난 생태학적 변화, 여행 및 교역의 획기적 증가, 인구학적 변화, 공중보건 체계의 이완과 와해, 항생제 오남용을 들었습니다. 현대 문명이 자랑하던 금자탑들인데 역설적으로 이 성과들이 도리어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조짐은 이미 오래전부터 관찰되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들어 광우병 파동을 겪으며 이윤을 추구하는 공장

식 식용가축산업의 폐해를 경험했습니다. 매년 새로운 형태의 조류독감으로 수백 수천만의 가금류들이 살처분을 당해왔습니다. 구제역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돌면서 수많은 소와 돼지들도 도살당하여 땅에 묻혔습니다. 지금도 가축들은 전염병에 취약한 좁디좁은 우리에 갇혀 인간의 식탁을 위해 야만적인 삶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만을 위해 타 생명을 학대하는 생명경시 문화에 대한 꾸짖음이요,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행복할 때에만 인간 또한 안전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21절이 말하는 피조물의 해방을 향한 탄식과 일치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이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둘째, 코로나19 사태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무엇을 믿어왔는지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역사의 질곡을 국민들과 함께 헤쳐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가 변질하여 더 높고 큰 것만을 지향하기 시작했습니

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가 이런 무능력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코로나19가 중국 내부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기독교 일각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압하는 독재정권을 심판’하는 섭리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해석은 얼마 가지 않아 심각한 오류임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는 이념과 체제를 가리지 않았고,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조차 구별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심판론을 설파한 교회까지 감염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성서해석 때문에 교회는 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마술적 신비주의에 기대어 공중보건의 기본 상식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얼마 후 이단인 신천지로 인해 지역감염이 폭발적으로 증가 한국사회는 신천지라는 독버섯 같은 집단을 주목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교회가 잠시 세간의 이목에서 벗어났지만 이후 다시 교회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염병 앞에서 한 장소에서 모이는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과연 신천지와 무엇이 다르냐?’며 매섭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박해 받던 시기에는 예배 자체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논리는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 설득력을 잃고 맙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신앙 자체를 위협하며 목숨을 내놓으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참 의미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막 3:4).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도리어 이웃의 생명을 죽일 수 있으니 집단적으로 모이는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예배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고, 심각한 ‘주일성수’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웃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셋째, 코로나19 사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사랑의 공적 책임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땅의 소금’, ‘세상의 빛’(마 5:13-14)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실질적으

로 섬기는 교회의 공적 책임을 정확히 규정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참 교회는 자체성장만을 위해 앞으로 내달리지 말고 주변의 연약한 생명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회적 약자를 첫 희생물로 삼고 있습니다. 면역이 약한 기저질환자들과 어르신들, 가난하여 의료혜택을 받기 힘든 계층이 첫 목표물입니다. 이런 현상은 공중보건 체계가 미비한 국가들에서 더욱 치명적이지만, 의료체계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던 나라들에서도 의료복지의 양극화라는 내부 모순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이 안심할 수 있는 좋은 공중보건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경제적 타격을 가장 빨리 받는 서민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이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공적 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한국교회는 교회 바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교회성장에 몰두하다 우리는 교회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나라를 놓쳐 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방역담당자들과 의료진들도 거룩한 하나님나라의 협업 목회자들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분업을 맡은 각 분야의 전문인들을 동역자로 존중하며 함께 사회를 위해 노력한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 뿐 아니라 앞으로 닥칠 그 어떤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안과 밖을 아우르는 하나님나라의 거룩한 협업이 필요한 때입니다.

글을 마치며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부활절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이 사태를 계기로 모든 생명이 안전하고 행복한 문명으로 전환해가기를, 한국교회가 이웃사랑의 공적 책임을 다하게 되기를. 모든 직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나라의 거룩한 동역자가 되기를,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



팬데믹 시기, 누가 가장 고통받는가

이은영
연합회 돌봄과살림위원장

프랑스 파리를 상징하는 에펠탑에 3월 27일(현지시간) 밤 'MERCI'(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출처 파리 로이 터=연합뉴스 leekm@yna.co.kr)

무기한 휴교, 휴업 그리고 레이오프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전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한 후 연일 전세계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갱신되며 불안과 공포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우리나라는 확산 추세가 조금 주춤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아직 안심하기엔 선부른 상황이다.

이제 코로나19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고 미국을 휩쓸며 수많은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1만 5천 명을 넘어섰으며, 뉴욕에서는 10분마다 1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전세계 모든 학교가 다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고 식당, 카페 등이 다 문을 닫고 놀이터, 스키장까지 문을 닫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4월 말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이마저 언제까지 연장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미주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들르는 동네 마실 장소인 스타벅스까지 문을 닫았으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상생활이 제한되니 일상과 관련된 수많은 비즈니스는 고객이 끊어지고 문 닫는 식당, 가게가 많으니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특히 해고가 용이한 서구사회에서는 벌써 수많은 레

이오프(경영난으로 인한 해고) 실직자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한 현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근로자들이 더 어려움에 처한 것은 자명하다. 일이 없고 매출이 없으니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대상자들 중에는 근로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평소에도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YWCA와 관련된 종사자들만 해도 요양보호사, 가사돌봄, 산모도우미, 아이돌봄 등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도 늘고 외부인과의 접촉도 꺼리게 되니 일자리가 사라지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거의 돌봄서비스를 취소하는 형편이다. 돌봄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취약계층에 속한 분들이 많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데, 일자리마저 없어지니 생계의 위협을 받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나 간병사의 경우도 병·의원의 직접 고용인력이 아니고, 의료진이 아니다보니 병원에서 일은 하지만 방호복이나 마스크 등의 의료용품 지급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협동조합으로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천YWCA,

성남YWCA 돌봄과살림의 경우 돌보미에 대한 구인 요청건이 3월의 경우 95%가 감소했고, 충주YWCA도 기존 의료시설의 간병사 수요가 사라져 요양보호사들이 대부분 일자리를 얻지 못해 다른 의료시설을 알아보며 전전하고 있고, 경기권을 비롯한 인천YWCA 역시 돌봄 수요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일부 회원YWCA에서는 돌보미들의 일자리 90%가 사라졌는데, 오히려 구직을 희망하는 문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YWCA 회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돌보미회원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생계유지를 위한 실질적 지원과 보호 이뤄져야

이미 재난기본소득 내지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각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원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어떤 프랑스인도 수입 없이 두지 않겠다”며 가사도우미에 대한 특별지원책을 발표했다. 즉 일시적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될 가사도우미들에게 각자의 통상임금에서 80%를 국가가 지원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독일 역시 간호·돌봄영역 구조개혁을 위해 올해부터 ‘돌봄인력지원법’(Pflegeberufegesetz)을 시행 중이다. 새 법안은 기존에 분리되었던 노인 돌봄과 의료·간호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 법안으로 얼마만큼 돌봄영역 노동자들의 처우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법안을 개정해 구조를 바꿔나가는 시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물론 가사도우미를 사회서비스체계에 편입해 지원하는 유럽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우려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은 공통된다. 한국의 돌봄노동자는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제외’라는 문구로 인해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인 4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돌봄노동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YWCA의


여론을 모아야 하는 이유이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한 ‘푸드뱅크’(폐기되는 정장 식품이나 식재료를 기부받아 결식자에게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에 더 많은 지원과 기부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푸드뱅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 많은 이들이 푸드뱅크와 같은 생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현장인력들의 피팜 어린 노고가 있다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서비스가 수행되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추진력은 시민들의 의식과 요구에서 나오는 것이라 생각된다. YWCA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위한 정책 제안과 사회서비스를 더 성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관련 분야 인력들, 일선 공무원, 의료시설과 검역소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고생하는 방역, 청소, 지원인력 등 모든 현장인력(frontline workers)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마트도 가고, 일상생활의 소소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분들의 피팜 어린 노고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두들 더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저녁 8시, 미주지역에서는 저녁 7시 이때가 이런 일선 현장인력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이다. 코로나19로 모두 집에 머무는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와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현장인력들을 응원하고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나의 무난한 일상이 이런 모든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 덕분임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사회 속에서 YWCA의 역할을 점검하고 더 고민해보고 실행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생명운동체 대구YWCA와 YWCA공동체, 그 힘!

박선

대구YWCA 사무총장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2월 17일 이후 대구 신천지교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막연한 불안감과 죄책감, 무기력함, 막막함이 압도했다. 문제의 신천지교회도 대구YWCA회관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의 건물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먼저 Y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Y가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급한 마음이 앞섰다.

그러던 중 “고구마가 한 박스 같거예요! 힘내세요”라는 연합회 국장님의 전화 한 통에 눈물이 났다. “그래 이거구나!” 응원하는 손길이 있음을 알리는 것,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우리 Y가 해야 할 일이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힘이 났다.

2월 28일 연합회 후원금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 전국Y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마스크, 손 소독제, 건어물 그리고 직접 만든 면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따뜻한 손편지와 함께 많은 물품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긴급하게 모금한 피 같은

후원금이 통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올해 새로 선출된 대구Y 임원진이 긴급하게 카카오톡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체 모금도 시작하고 지원해야 할 일들을 결정했다. 코로나 대응팀을 꾸려 긴급지원할 곳, 지원물품, 지원방법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돈도 있고 물품도 있으니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실무활동가의 안전도 중요했기에 재택근무나 단축근무를 제안했으나, 나눔이 먼저라고 마스크를 쓰고 전 실무활동가와 임원진들이 모여 ‘나눔 꾸러미’를 만들기 시작했다. 가제손수건 3천 개, 마스크 1천5백 개가 대구Y 회보와 함께 회원들의 가정으로 보내졌고, 손 소독제·비타민제 선물꾸러미를 8개 군·구 보건소, 거점 및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소방안전본부, 심리지원단, 교육연수원 등의 일선 의료진들에게 배송했다. “53개 YWCA가 함께 하니 힘내세요”라는 응원 메시지와 함께.

언론 홍보가 되면서 이곳저곳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 잔액과 남은 물품을 체크하며 2차 지원에 들어갔다. 일선 공무원들과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지원을 결정

하고, 장애인지역공동체, 백혈병소아암협회, 돌봄기관, 민간 도서관, 공부방, 노인돌봄기관, 아동양육시설, 꿈드림 친구들, Y돌봄 회원들 등에 쌀국수, 비타민제,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지금은 대구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사각지대가 보이면 일대일 직접 배달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폭풍 같았던 대구의 3월을 보내면서 Y사람임에 새삼 감사함을 느낀다. Y의 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줄 알기에 1차, 2차, 3

차 모금했다고 24일 어제까지도 보내온 회원Y에 정말 눈물나는 감사를 드린다.

한마음으로 지원해 주신 회원Y 회장님들과 동부지역 중경회장님, 사무총장님들, 실무활동가 한분 한분이 참 고마운 사랑 그 자체다. YWCA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생명을 실어 나르는 건강한 대구의 생명운동체가 되고자 대구Y 자원·실무활동가들은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 기쁨의 씨앗을 뿌린다. 

소감

“전국 Y에서 도와주신 손길에 힘입어 대구Y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사각지대의 시민들을 위해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것에 감사함과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희망을 나누다 보면 코로나19, 하루 빨리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구Y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보현 간사_대구YWCA 사회개발위원회, 홍보담당)

“여러 회원Y에서 대구Y를 향한 구호물품을 나눔으로써 YWCA는 생명살림을 실천하는 귀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곧 있을 검정고시를 대비한 기출문제, 손수건, 마스크, 손 세정제를 우편으로 보내는 작업을 통해 Y가 지향하는 생명살림운동에 함께 발맞춰 나가는 시간이 되어 감동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모든 이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하루 빨리 마무리되길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채성민 간사_대구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물품지원담당)

“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회원Y에서 보내온 성금과 후원물품이 늘어나면서 코로나대응팀이 꾸려졌습니다. YWCA가 함께 합니다. 희망나눔운동이라는 타이틀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을 시작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에게 Y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대구를 향한 52개 회원Y와 연합회의 사랑에 감동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격려할 수 있도록 코로나 대응팀으로 사명을 맡겨주심 또한 감사하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물러나길 기도합니다.”

(전명진 센터장_대구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코로나대응팀장)



YWCA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한국YWCA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선포했다(3월 2일). 전국에 있는 회원YWCA에서는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대구 지역과 코로나19로 더욱 힘겨워할 이들,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대구YWCA에 후원금과 물품(손 소독제, 면 마스크)을 전달하다

2월 18일 대구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후 대구·경북지역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전국 회원YWCA에서는 대구YWCA에 긴급 후원금을 보내 대구YWCA 활동을 격려하고 대구와 대구시민을 응원하였다.

한국YWCA연합회와 고양, 부천, 성남, 수원, 안산(손 소독제와 후원금), 안양, 의정부, 파주, 하남, 거제, 김해(면 마스크), 마산, 부산, 사천, 양산(마스크), 울산, 진주, 진해(면 마스크와 후원금), 창원YWCA, 북부지역위원회(강릉, 동해, 서울(면 마스크와 후원금), 속초, 원주, 인천, 춘천), 중부지역위원회(논산, 대전, 서천, 세종, 제천, 천안, 청주, 충주)가 대구YWCA에 후원금을 보냈다. 또한 서부지역위원회(광양, 광주, 군산, 남원, 목포, 서귀포(후원금), 순천, 여수, 익산, 전주, 제주(후원금))는 대구YWCA에 손 소독제 1천 개를 전달했다.

2. 재난으로 더욱 힘겨워 할 이웃을 돕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더욱 힘들어할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 YWCA가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나섰다.

| 광양YWCA

광양Y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과 재가도사탁 중단으로 결식 우려가 없도록 매주 2회(화, 금)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광양Y 자체인력으로 대체식을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



광양

| 광주YWCA

광주Y는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 마스크 1천 장을 직접 만들어 전달했다. 광주Y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이 마스크는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구관내 장애인과 고령인 마을에 1차 전달하였고, Y살림돌보미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여성·아동·청소년 보호 생활시설의 종사자들에게 전달하여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는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였다. 광주Y는 앞으로도 8천 장의 마스크를 제작하여 8백 명의 장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

| 김해YWCA

저소득계층을 위한 면 마스크와 간식꾸러미 3백 개를 김해시청에 전달했다. 이 마스크는 김해Y 자원·실무활동가들이 직접 만들고, 간식도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택해 일일이 포장했다. 또한 학교급식중단으로 피해가 큰 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꾸러미 판매에도 동참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소망했다.



김해

| 목포YWCA

목포Y는 대구Y에 손 소독제와 멸치, 미역, 김 등 건어물도 함께 전달하고, 사회적기업 희망지원센터에도 후원금을 보내 마음을 나눴다. 또한 목포지역 중증장애인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를 위해 손 소독제 1백50개를 전달하고, 살림돌보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부속시설에도 손 소독제를, 직원에게는 면 마스크를 배부해 희망의 메시지와 나눔을 실천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정오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목포

| 속초YWCA

속초Y는 3월 9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마다 자원봉사자와 실무활동가들이 모여 면 마스크를 제작했다. 속초시청을 찾아 이렇게 제작한 마스크를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전달을 부탁하며 3백 개를 기부했다.



속초

| 순천YWCA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만 65세 이상 저소득 결식우려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급식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순천Y는 3월 23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조곡무료급식소 '해피누리'를 이용하는 115명의 어르신들 가정에 가가호호 방문해 마스크, 쌀, 김치, 라면 등이 들어있는 먹거리 상자를 배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순천

| 세종YWCA

세종Y는 본부와 부속시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활동들을 진행했다. 공적마스크 수급현황조사를 시작으로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에게 수제간식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센터 방역봉사단과 함께 교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노당, 시민단체 등 201개소 시설방역봉사를 지원했다. 또한 4월 6일부터는 세종Y 교육협동조합 씽크머니연구회 강사들과 함께 안심마스크 2백 개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국가재난상황 속에서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있어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



세종

| 여수YWCA

여수Y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힘을 보태고자 하는 자원 봉사자들을 모집해 면 마스크를 제작했다. 총 8백20개 면 마스크를 제작해 대구 발달장애인 안심마을, 여수 도서지역,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했다. 여수Y는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수

| 울산YWCA

울산Y 부속시설 울산여성회관의 양장전문기능사반과 패밀리룩반 강사들이 천마스크 2백 장을 제작해 울산Y에 기부했다. 이 마스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는 청소년, 다문화, 성매매피해시설의 활동가들에게 전달되었다. 기부를 통하여 '우리, 함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울산

| 제천YWCA

제천Y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재가어르신과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면 마스크 총 2백40개를 전달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마음을 담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제천

| 천안YWCA

'천안YWCA와 함께하는 마스크 나누기 운동'으로 집에 보관 중인 마스크 또는 재능기부로 제작한 면 마스크를 기부받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하자 많은 회원이 감동을 받아 마스크 나누기 운동이 확대되었다. 특히 이종례 명예이사(75세)와 그의 노모 심효석씨(95세)가 재봉틀로 면 마스크를 만드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였다. 이렇게 모여진 마스크는 3월 24일 천안시 복지재단에 전달되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돌아갔다. 시민들의 응원과 함께 천안Y도 어려운 위기를 이겨내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천안

| 포항YWCA

포항Y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삼계탕과 컵과일을 전달했을 뿐 아니라 무료급식이 중단된 포항무료급식소에 끼니를 거르는 이들을 위해 간편식과 간식, 마스크 등이 담긴 생필품 키트 1백50상자를 전달했다. 이 후원은 포항Y 자원·실무활동가들의 성금으로 가능했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나 더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했다.



포항

3. 의료진과 상황실을 응원하다

회원YWCA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전방에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상황실 근무자를 응원했다.

원주YWCA 이사진의 후원과 재능기부로 응원의 꽃바구니를 만들어 원주시청 코로나 상황실, 원주보건소와 소방서, 병원 등에 보냈다. 인천YWCA는 인천의료원 의료진을 위한 실내화와 EM제품과 환우들을 위한 담요를 전달했다. 대구YWCA는 의료진에게 희망나눔 응원꾸러미를, 마산YWCA는 마산의료원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간식을, 포항YWCA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삼계탕과 과일컵을 전달했다. 남원YWCA는 남원의료원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도시락, 서귀포YWCA는 관내 주민센터, 보건소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음료와 빵을, 제주YWCA도 병원 및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떡과 음료수를 전달했다. 세종YWCA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진과 봉사자에게, 천안YWCA도 천안시청에 간식을 전달했다. 청주YWCA는 대구동산병원으로 청주아이쿱생협 간식과 음료수를, 충주YWCA는 충주의료원 의료진에게 봄꽃화분과 간식을 전달했다.



①원주YWCA ②인천YWCA ③대구YWCA
④마산YWCA ⑤포항YWCA ⑥남원YWCA
⑦제주YWCA ⑧세종YWCA ⑨천안YWCA
⑩청주YWCA ⑪충주YWCA

4. 세밀한 영역까지 지원을 이어가다

각 회원YWCA에서는 세밀하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서울YWCA



서울Y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참고맙습니다x힘내세요!’ 캠페인으로 서울백병원과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면티와 양말, 간식거리 등이 담긴 ‘힘내세요! Y키트’를 전달했다. 또한 서울Y 회관을 찾은 택배기사들에게도 키트를 선물하며 애쓰시는 분들

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밖에도 카드뉴스 ‘코로나19 대응편’ 시리즈(건강하게 내 몸 지키기, 공동체 지키기)를 제작했고,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정리해 소개하는 ‘서울Y 시스터즈 리포트’를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3월 22일부터는 기도운동 ‘With YWCA With Pray! YWCA와 함께 기도’와 함께!를 시작했다. 4월 26일까지 매주일마다 릴레이 기도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염원하며 세상과 이웃을 위한 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춘천YWCA



춘천Y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자 자원활동가들이 재능을 기부했다. 7-8명의 이사들이 4월 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해 9시간씩 천연재료로 염색한 면 마스크 3백 개를 만들었다. 이 마스크는 춘천Y 간병사를 포함한 돌봄과살림 회원과 춘천 시내 미자립교회 두 곳에 전달되었다. 코로나19 위험에 놓여있으나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회원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해 YWCA 마스크 나누기 운동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었다.

통영YWCA



코로나19로 인해 화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영Y는 화훼농가를 방문해 실태 조사를 했다.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자 통영Y와 함께하는 로컬소비운동 1탄 ‘당신은 나에게 꽃이다’라는 홍보리플렛을 만들어 SNS로 일주일 동안 후리 지아, 해바라기, 안개꽃을 주문받아 판매했다. 난방비도 부족했던 화훼농가 사장님은 ‘힘내서 다시 한 번 열심히 꽃을

키우겠다’시며 인사를 전했다. 또한 통영시여성회관 홈페이지 강사와 수강생들의 자원봉사로 통영Y회원과 함께 하는 나눔 캠페인 ‘하나의 나눔, 두배의 기쁨’을 진행하고 있다. 회원들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나가자는 취지로 회원들께 천마스크 1장 무료 나눔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익금을 코로나19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통영Y와 함께하는 로컬소비운동’과 ‘통영Y회원과 함께하는 나눔 캠페인’은 통영Y의 사랑의 수고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진행하고 있다.

YWCA 애프터유 캠페인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부터 나누겠습니다

의료진과 필요한 이웃들에게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YWCA 애프터유 캠페인

애프터유 캠페인, 이렇게 참여해요!

1. 개인위생 수칙을 늘 지키겠습니다
2. 외출과 모임을 삼가겠습니다
3. 마스크 한 장은 먼저,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4. 면마스크도 활용하겠습니다
5. 돌봄노동자들과 의료진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 YWCA 애프터유 캠페인
코로나19로 마스크 부족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배려의 마음으로 필요한 이웃과 의료진에게 먼저 마스크를 양보하는 캠페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요!

YWCA 애프터유 캠페인

1.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겠습니다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히 손 씻기
- ☑ 기침·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출처: 질병관리본부 '집에 지키는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YWCA 애프터유 캠페인

2. 외출과 모임을 삼가겠습니다

YWCA 애프터유 캠페인

3. 마스크 한 장은 먼저,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YWCA 애프터유 캠페인

4. 면마스크도 활용하겠습니다

* 서울YWCA 돌봄복지관 부속시설 누리들의 '돌봄'에서 만든 면마스크

YWCA 애프터유 캠페인

5. 돌봄노동자들과 의료진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 YWCA 돌봄노동자 캐릭터

YWCA 애프터유 캠페인

한국YWCA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마스크 나눔을 실천합니다

YWCA 애프터유 캠페인, 우리 모두 함께해요!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 입구와 출구는 같다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현대 자본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위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코로나 위기 자체가 단기적으로 가져온 충격뿐 아니라 이후 여러 측면에서 이어질 여파가 어느 정도 일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에 기후위기에 대해 고조되었던 관심이 사라질까 염려되기도 한다. 누군가는 코로나 위기가 좀 지나 보내고 환경 걱정을 하자고 이야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의 뿌리는 하나다. 기후변화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대규모 감염병과 기후변화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연구와 보고가 꾸준히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좁히고 이에 따라 이들은 인간의 활동 공간으로 내려와서 접촉이 늘어나게 되었다. 지난 80년간 유행한 치명적인 전염병들의 약 70%는 유인원, 조류, 돼지, 박쥐 등 야생동물이 매개체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하나는 영구동토층 속에 잠들어 있던 바이러스가 얼음이 녹으면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그 전에는 한 지역에서만 존재했던 풍토병이 모기나 바이러스 등의 매개체와 함께 다른 대륙으로 건너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병원체와 오랜 시간 동안 격리되어 있던 사람들은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습하고 따뜻한 날씨에서 박테리아가 더 많이 증식할 수 있고 사람들의 저항력이 약화되는 악순환도 우려된다.

현대 자본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위기

더 넓게 보면 대량 생산과 소비, 대규모 이동과 접촉이 일상화된 현대 자본주의와 세계화의 방식이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를 함께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코로나 위기와 기후위기의 대응은 별개일 수 없고 선후차로 볼 일도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업, 유통업, 관광업 모두가 위축되면서 산업 활동과 에너지 소비 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들의 정책 우선순위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를 가장 처음 겪었으며 세계 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기도 한 중국의 경우, 지난 3월 3일부터 16일 사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25% 정도 줄었다고 한다. 배출량으로는 1억 톤 정도가 줄어든 것인데, 이는 전 세계 배출량의 6%에 해당한다. 중국 석탄발전소의 일일 발전량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철강 생산량은 5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자동차 이용이 줄어들면서 이산화질소의 배출량도 감소했고, 그만큼 대기 환경까지 좋아졌다. 뉴욕시도 3월 말 차량 통행량이 전년에 비해 35% 줄어들면서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50%,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10%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의 경제와 생활이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음을 그리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였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환경 개선의 편익도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낙관적인 미래로 이어진다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대기 질이 개선되었으나 경기 회복과 함께 오염도 돌아온 경험이 있다. 중국 정부를 비롯해서 각국 정부가 코로나 위기가 진정되자마자 서둘러 대규모 건설 사업과 산업 부흥에 나선다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 제시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유럽연합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패키지인 ‘그린 딜’ 정책이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코로나 위기 이후 유럽 각국에서 녹색경제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사라졌으며, 2050년까지 유럽을 최초의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유럽연합의 목표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예정되었던 26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도 개최 연기가 발표되었다. 내년에 발표될 파리협정을 점검하고 1.5도 목표 달성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회의마저 열리지 않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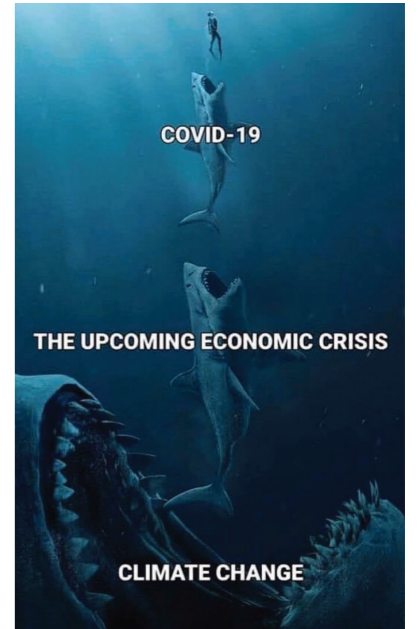
코로나 위기가 기후위기 장면을 간접 체험하게 해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전망으로 끝이어서는 안 되고 끝일 필요도 없다. 코로나 위기는 기후위기 해결에도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히 줄어드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었다. 불필요한 산업 생산을 줄이고 이동을 자제하는 사회적 멈춤과 여유가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집단과 부문에 대해 세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

요하지만, 과거와 같은 규모와 방식의 생산과 소비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고, 빈발하게 될 전염병과 기후위기 상황에 들어맞지도 않을 것이다.

또 하나, 코로나 위기의 장면들은 다가오고 있는 기후위기의 모습을 간접 체험하게 해주고 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이동하고 만날 수 없는 조건들이 일상화되고 그것을 견뎌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 국가적인 자원 동원과 조율, 그리고 국민들의 협력이 위기 해결의 필요조건이라는 것도 배우고 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과 이에 수반되는 조치와 행동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통해 기후위기를 대비하고, 또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면서 기후위기를 이겨내는 토론과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윌리엄 맥닐은 <전염병의 세계사>에서 역사적으로 질병이 인간 문명을 결정적으로 바꾸었던 여러 사례들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인간 역시 자연과 생태계의 ‘기생충’일 수 있으며 따라서 자연을 완전히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만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맥닐의 메시지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할지는 우리의 몫이지만 또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계기이기도 할 것이다. 



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 위기,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더 큰 위기가 올 것임을 보여주는 패러디 포스터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 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 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를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을 포함한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 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 정부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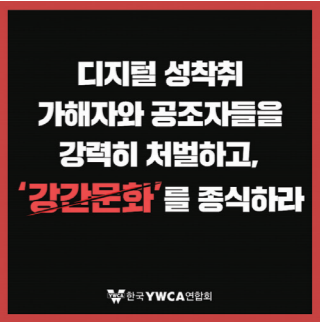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그마저도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디지털 성착취를 끊어낼 행동하는 사유를 위하여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자 중 한 명인 소위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었다. 조주빈과 더불어 N번방에 들어갔던 26만명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호기심 등에 의해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가 'N번방 사건'에 대하는 태도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몸을 대하는 모순적인 태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극악함을 끊어낼 수 있는 저항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매력적이지만 위험한 여성의 몸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객관적인 것, 이성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변덕스럽고 자연화된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이때 여성의 몸은 유혹하는 몸과 모성적 몸으로 이분화되었는데, 유혹하는 몸은 매력적인 것이면서도 위험한 것으로, 임신·출산하는 몸은 무성적인 것으로서 더이상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성스러운 것으로 이미지화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매력적인 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동시에 유혹하는 몸은 되지 않아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는데, 이러한 인식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외모와 행동을 끊임없이 검열하게 하고, 타자화를 내면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조건에서 여성의 몸은 역사적으로 그림으로, 조각으로, 사진과 비디오로, 동영상과 합성 등으로 사고, 팔리고, 공유되어왔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 '음란한' 행위에 참여한 여성의 책임으로 넘겨졌다. 그러한 인식들이 수천년 동안 누적된 결과, 소라넷을 통해 받은 충격이 채가 시기도 전에, 남성/가해자들은 이미지 조작을 넘어, '진짜 사람 여성'을 위협·협박하여 각종 성/고문과 성폭력, 성착취

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디지털 성폭력과 현실 성폭력은 그 경계를 넘은 지 오래다.

N번방의 피해를 만든 것은 무엇인가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이토록 자유롭게 착취할 수 있었던 방법은 놀랍도록 간단했다. "내가 일탈계를 운영했음을 부모님이나 학교에 알리겠다"는 협박이 그것이다. 최근 출판된 『성적 동의, 지금 강조해야 할 것』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신자유주의적 가치 속에서 여성/개인은 자기계발 담론을 통해 실천적 성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한편,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회적, 구조적 제약 없이 무한한 성적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분위기 속에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성 개인에게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한다.¹⁾ 피해자들은 십대 여성들도 성적욕망이 있고, 포르노그라피도 볼 수 있고, 일탈계를 운영할 수도 있으며, 자발적으로 나의 성적 이미지를 사고 팔 수도 있는 존재라고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부모와 학교에 알려지게 되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은 직감을 받았으리라.

1) Popova, Milena(2019), 함현주 역, 『성적동의 : 지금 강조해야 할 것』, 서울: 마티. 원전: Sexual Consent, 2019.


성폭력과 성착취를 당하는 것이 부모나 선생이 알게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을 피해자들의 판단은 이 사회가 여성들의 몸과 인격을 얼마나 분리적으로 사고했으며,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적 기준과 규제가 얼마나 강고하게 존재했는지를 드러낸다. 그래서 N번방의 피해는 여성들에게 몸에 대한 권리는 없고 여성에 대한 책임과 비난만 일삼았던 남성중심적 인식들의 처참한 결과이다. 그리고 그러한 왜곡된 상황을 자원삼아 재밌거리로, 돈버는 수단으로 삼았던 가해자들의 행동은 그래서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떠한 여성이라도 마땅히 자신에 대한 폭력을 중단시킬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상식은 여전히 요원하다. 성적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진짜' 피해자가 될 수도 없었던, 허공에 흩어진 수많은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어디쯤에서나 들릴 수 있을지 막막하다.

남성의 몸은 왜 팔리지 않는가

그렇다면 왜 남성의 몸은 팔리지 않는가. 여성들에게 남성의 몸은 돈을 주고 사고 팔 만큼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그동안 남성의 몸이나 성적 부위들은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위협적인 무기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잔 브라운밀러는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두려움을 일으키는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일은 불의 사용과 돌도끼의 발명과 함께 선사시대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발견으로 꼽아야만 한다”²⁾고 말한 바 있는데, 이처럼 남성의 몸을 위협적인 것으로 각인시켜온 문화적 기제로 인해 남성의 몸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남성의 몸을 착취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사고 팔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간단하다. 그것이 옳지 못한 행동임을 '사유'하기 때문이리라.

행동하는 사유함을 위하여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 학살에 공모했던 아이히만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을 말한 바 있다. 책임에 대한 판단 능력이 결여될 때, 사유하지 않을 때 악은 언제든지 평범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³⁾ N번방 성착취 사건은 제작자, 시청자, 매매자들이 호기심/상업적이익/우월감/보복/관음증적 시선/왜곡된 성적 판타지 등이 결합된 한국사회 '집합적 남성성'의 한 형태이다. 그것은 사유하지 않을 때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26만명보다 어쩌면 더 많은 '악'들이 일상 속에 은폐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이다.

그동안 수많은 성폭력들을, 성매매와 불법촬영과 유포들을 가볍게 넘겨 왔던 댓가는 이토록 처절하게 다가왔다. 이제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은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통념에 가득찬 사회와 공동체·법·국가와 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매우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은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며, '해결'은 도달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지향의 다른 이름이자 과정이다. 이미 각종 청원운동으로,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응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각종 이슈파이팅뿐 아니라 다가오는 총선의 후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압박하면서 해결이 시도되고 있다.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서, 개인적 책임이 아닌 공동체적 책임으로서 반성폭력운동의 정치가,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세력화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당신이 속해 있는 다양한 공간들에서, 온라인과 SNS 속에서, 투표용지를 통해서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의 행동하는 사유함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2) Brownmiller, Susan(2018), 박소영 역,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 남성, 여성 그리고 강간의 역사』, 서울: 오월의 봄. 원전: Against our will : men, women and rape, 1975.
3) Arendt, Hannah(2019), 서유경 역, 『책임과 판단』, 서울: 필로소픽: 푸른커뮤니케이션. 원전: Responsibility and judgment, 2003.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와 공조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강간문화'를 종식하라

계속해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유희를 위한 도구로 여기며 사고파는 '강간문화'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 정준영 단독방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성착취물을 공유하던 남성들은 해외에 서버를 둔 '안전한'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숨어들었다. 여성들을 유인해 신상정보를 받아낸 뒤 협박하며 스스로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했고, 이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했다.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들에 의해 '노예'로 불렸고,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됐다.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수많은 방들이 만들어졌으며, 수사망을 피해 산발적으로 방을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해 'n번방'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지난 3월 19일 운영자 중에서도 가장 악랄했던 '박사'(20대 조모씨)가 구속됐고 공범도 함께 검거되었다. 추적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참가자는 26만명에 달했고, '박사'가 운영하는 대화방에는 최대 1만명이 참여하는 등 수많은 동조자와 '관전자'들이 존재했음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렇듯 '박사'의 악랄한 범죄를 존재하게 한 이면에는 수많은 남성들이 존재했고, 이들을 등에 업은 '박사'는 끊임없이 활개치며 성착취를 서슴없이 자행했다. '집단 성폭력' 가해자인 '박사'와 공범자, 관전자들을 처벌하고,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인 성착취를 죄의식 없이 공유하고 놀이로 여기는 뿌리 깊은 '강간문화'를 종식해야 한다.

우리는 웹하드 카르텔, 아동성착취 사이트 '웹컴투 코리아' 운영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등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피해자의 호소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경찰, 가해자에게 감정이입하며 면죄부를 주는 검찰과 법원도 '강간문화'의 공범임을 알고 있다. 작년 n번방을 보고 충격을 받은 선의의 신고자가 경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또 다른 n번방을 만들며 적극적인 가해자로 돌아서기도 한 사건은 적극적인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양형 기준의 강화가 없다면 '박사', '갓', '와치맨'과 같은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들은 다른 메신저 '디스코드'로 장소를 바꿔 성착취물을 또다시 공유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성착취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살인 범죄'라는 것을 잊어서 안 된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종식하고자 하는 수사당국의 강력한 의지, 국회의 조속한 법 제·개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텔레그램 n번방'은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한국YWCA연합회는 이번 디지털 성착취 온상인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착취 근절과 '강간문화' 종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찰·검찰·법원은 디지털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생산 및 배포한 가해자를 철저히 색출, 수사하고 신상을 공개하라!
-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을 제·개정으로 가해자 처벌과 양형기준 강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라!
-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마련하라!
- 정부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및 지원제도를 강화하라!
- 교육부는 왜곡된 성문화 해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보건 위주의 성교육을 넘어 현실에 맞는 이슈와 관점이 담긴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라!
- 언론은 선정적 보도로 인한 2차 가해와 왜곡된 보도를 멈추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라!

2020년 3월 23일
한국YWCA연합회

한국인 디아스포라¹⁾ '조선학교'를 바로 보다

최수산나

연합회 중점운동국 부장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실시를 요구하는 집회에 함께 한 '치바우리학교모임' 사람들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해 말 회원YWCA와 조선학교 지원 모금을 벌이고 올 4월 치바 조선학교를 지원하였다. 최근 일본 사이타마 시가 관내 유치원과 보육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방지용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학교 유치부를 제외한다는 뉴스가 있었다. 남북한 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론을 의식하고 바로 시정 조치하였다. 뜨거운 관심을 모은 '조선학교'는 어떤 곳인가. 어떤 역사 속에서 지금껏 지켜져 왔는가. 그리고 왜 한국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학교에 관한 편견

일본 내 조선학교에 대한 가장 흔한 편견과 오해가 있다. 첫째, 조선학교는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교육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학교'는, 해방 이후 우리말,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생겨난 '국어강습소'를 시작으로 한다. 당시 전국적으로 500여 개소가 설립되었고, '재일조선인연합'이 건설되면서 '국어강습소'에서 '조선인학교'로 체계를 잡아갔다. 그러나 1948년 1월, 일본은 연합군총사령부 맥아더 장군의 비호 하에 조선학교 폐교령을 내린다. 4.24 한신 교육투쟁은 민족 교육과 민족성을 지켜내려는 조선인들의 운동이었다. 일본 전역에 동포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고, 3천 명이 체포되었으며, 오사카에서는 16살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일본정부는 1949년 2차 폐쇄 정책을 강행하고, 조선학교는 암흑기를 맞는다. 1952년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해서 '외국인 자녀로서 일본학교에 취학의무가 없다'고 선언하고, 지원을 끊는다. 1955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총련)이 결성되었고, 1957년 북한의 교육원조비로 조선학교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북한과 총련, 조선학교를 하나로 간주하게 된다.

학제는 북한과 달리 우리와 동일한 6.3.3.4제이다. 내용은 국어, 역사, 사회 등 민족 교육을 포함하는 것과, 일본어 수업 외에는 우리말로 진행된다는 점 외에는 일본학교 과정과 같다. 초기 귀국을 전제로 한 교육에서, 현재는 일본에의 정주를 전제로 한 교육으로 변모하고 있다. 북한은 재일교포들의 생활고와 민족교육에 적극적 지원을 쏟았던 반면, 남한 사회는 오랫동안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어찌 보면 재일교포 사회가 북한에 고마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의 분단을 타국에서 접하며 차별 사회 속에서 남북의 화해와 번영을 누구보다 갈망했으 그들의 고난과 투쟁의 삶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조선학교는 북한 국적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1947년 외국인등록령 발효로, 일본에 있는 60여

만 명 조선인들의 국적을 변경했다. 당시 한반도에 '국가'가 없었으므로, 국명은 일본에서 '조선'으로 변경되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서 대한민국 국적 선택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생겼다. 많은 교포들이 '조선'에서 '한국'으로 국적을 바꾸었다. 하지만, 이러한 협정 영주권이 재일교포들의 단결을 막기 위한 분열정책으로 이해되면서,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이 분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이들, 정치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이들, 혹은 아무 조치도 않은 이들은 '조선적'으로 남겨졌다. 비자 발급 및 차별의 문제들이 지속 발생하면서 현재 조선적은 4만 명 미만이다. 조선학교도 재학생 절반 이상이 한국국적이며, 그다음은 일본, 조선적이다.

재일교포와 조선학교에 대한 편견은, 식민지배와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깊다. 한반도를 모국으로 여기고 그리움을 품고 살아왔지만, 막상 한국에서는 이들의 힘겨운 노력과 삶을 인정·지지하기는커녕 쉽게 일본인과 동일 취급해버린다.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대한 국내 인식은, 어떤 국적을 갖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 우대 혹은 홀대로 변한다.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치열한 삶의 죽적을 제국주의와 근대국가들의 건설이라는 역사적 관점과 보편적 인권이라는 사회적 가치 속에서 바로보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교무상화 제도의 배제

조선학교는 1960년대 일본정부의 각종 학교 법인인가를 취득하였다. 한때 160여 개 학교에 5만여 명의 재학생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60여 개의 초·중·고급학교 및 1개의 조선대학교를 포함하여 8천여 명이 다니고 있다.

고교무상화제도는 2010년 4월 일본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외교적 고려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외국인 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한 정책이다. 공립학교는 수업료 면제, 그 외는 취학지원금으로 학생 1인당 연간 12만 엔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2013년 출범한 아베신조정권은 조선학

교만을 유일하게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제외하였다. 그 근거는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의 관계, 조선학교의 운영 적정성 등이었다. 법적 취지에 어긋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 사유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내 조선고급학교 10개교 중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후쿠오카, 아이치 등 5개 학교 249명 학생이 원고가 되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고교무상화배제 배제 철회 소송과 국가 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2018년 오사카에서 보 조금 불지급에 대한 행정처분취소가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2019년 오사카, 도쿄에서 각각 무상화제도가 최고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조선학교 측이 패소하면서 추후 다른 지역 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학교는 재정난에 더해 소송비용 부담의 어려움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학교, 재일교포의 삶이자 역사

해방 이후 70년 동안 조선학교는 대학진학 자격 제한, 각종 전국대회 출전 금지, JR 정기통학권 할인을 차별, 학교 앞 스쿨존 설치 불허, 학교 기부금 세금면제 불허 등의 공식적인 배제와 차별은 물론, 전철에서 치마저고리 칼질사건, 학교 앞 혐오스피치 등에 시달려왔다.

매주 화요일 오사카부청 앞 항의시위와 조선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한 '금요행동'에는 일본인과 국제사회도 함께 참여해왔다. 2014년과 2018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9년 유엔아동인권위원회는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 정책 시정을 권고했다. 국제사회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우경화된 일본 사회는 재일교포의 기본적 인권마저 짓밟고 있다. 고교무상화 기각 결정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그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위법 행위이며, 교육권의 침해이다. 2019년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 유치원을 제외시켰다. 이 정책의 재원이 일본 거주자는 누구나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이 조치는 기본적인 형평성에서 어긋난다. 재일교포들은 한국인들에게 부탁한다. 조선학교가 왜 존재하는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차별의 현실이 어떠한지 이해해달라고, 조선학교를 지켜달라고 말이다.

1) 디아스포라(Diaspora)는 타의에 의해 고향을 떠나고 가족과 이별한 사람들의 거주지 또는 그 이산(離散)된 상황, 혹은 그 사람들을 말함.

나무보다 숲을 보는 언론을 기대하며

김하정
언론인권센터 사무차장

세계는 하나라고 했던가. 세계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말은 익히 들어왔으나,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를 목도하게 될 줄은 몰랐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Pandemic, 감염병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다. 팬데믹은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정보 등급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현재(3월31일) 전 세계 확진자는 80만 명, 사망자는 3만 8천 명을 넘어섰다.

일상이 바뀌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코로나19의 영향력은 세계를 뒤흔들 만큼 점차 커지며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기 시작했다. 마스크 쓰기는 물론, 스마트폰에 올리는 재난문자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수시로 안내해 주고 퇴근 시간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인식시켜 준다. 일상은 점차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고, 스마트폰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도 전보다 더 견고해졌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언론, 미디어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언론기사,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접하는 세상은 나의 인지 과정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언론의 역할에 더욱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다. 특히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일 때는 더욱 그러하다.

언론의 근시안적 보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언론의 의존성에 비해 만족도

는 그리 높지 못한 듯하다. 3월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정보 이용 및 상황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언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7개 대상(자기자신, 의료기관, 다른 사람들, 지방자치단체, 정부, 언론, 확진자/유증상자 순) 중 6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언론에 대한 낮은 평가는 근본적으로 언론의 ‘근시안적’인 보도에 원인이 있으리라 본다. 코로나19가 초기에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사회의 논란이 되었던 것은 중국, 중국인에 대한 혐오였다. 식당 앞에 붙여진 ‘중국인 출입금지’ 안내문의 사진은 언론과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게 했다. 또한 ‘우한폐렴’, ‘유령’, ‘공포’ 등 사실을 더 과장하고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는 기사를 써내려갔다.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났다. 이제 코로나19 감염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의 서양 국가에서 더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관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며 ‘미국인 입국금지’라는 말을 기사에 담지 않는다. 이제 중국인에 대한 혐오는 ‘신천지’로 옮겨 갔다. 차별과 혐오는 대상만 바뀔 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글과 이미지는 사람들의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는 만큼, 언론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 보아야 한다.

최근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코로나 관련 기사가 범람하고 있다. 재난보도준칙에 따르면 재난보도는 ‘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해야 하며,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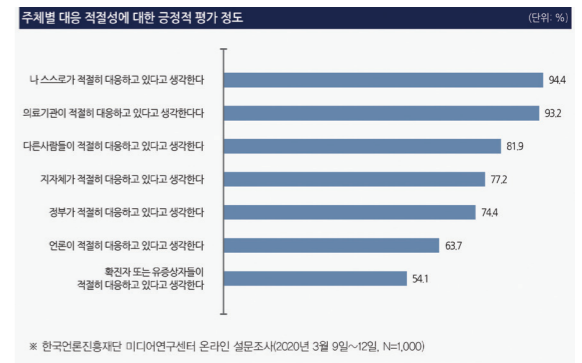
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정과 추정을 기반으로 쓴 추측성 기사나 검증되는 않는 논문으로 괜한 혼란과 공포를 야기하는 기사를 내보내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역시 언론의 근시안적인 대응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근본적·구조적 원인에 접근해야

그러다 보니 언론을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의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다. 2월 19일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던 청도대남병원에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 중 확진자는 총 102명이었다. 이 사례를 통해 폐쇄병동의 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역사회 의료시스템이 집단격리 수용 시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아쉽게도 언론은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에 주목할 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접근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5부제 시행 이후 미등록된 이주민·난민의 공적마스크 구매의 어려움, 자가 격리된 중증장애인들의 멈출 수밖에 없는 일상생활 등 사회의 취약한 부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기사는 많지 않다. 또 정부의 대응과 현장에서 힘써온 의료진의 노력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한국의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적자 누적을 문제 삼아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결정은 아직까지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반면 공공의료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어떠한가. 평균 5년씩 반복되는 바이러스감염 재난을 통해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수 없으며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관계라는 사실을 매년 체감하고 있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의 활동성, 세균성 감염 등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이상기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언론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한 단계 앞선 시각이 필요하다

코로나 사태는 장기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기점으로 급격한 사회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의 아젠다는 누가 설정할 수 있을까. 언론이 단지 지금 상황을 단발적으로 보여주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한 단계 앞선 시각을 제공해줄 수는 없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기전과 사회적 변화에 맞서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이다. 각 언론의 다양한 관점과 취재가 필요한 지점이다.

다만, 그들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비판이 아닌 사회적 관심이 동반되어야 한다. 감염확산이 끝나면 늘 그랬던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가 각자의 일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내 일상이 된 언론을 비롯한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비판이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고 각자가 정보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 미디어는 분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는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시민 개인과 사회가 함께 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YWCA가 오래된 역사와 지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관심과 역량을 쏟는다면 분명 시민사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YWCA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기대해본다.

n번방의 두려움 한 인간의 인격을 살해하는 현장



Telegram

대학·청년YWCA 소통국

지난 3월, 텔레그램 메신저(Telegram Messenger)를 이용한 “n번방” 고발에 이어 더 악랄하고 엽기적인 음란물이 고가에 거래되는 “박사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해온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었다. 끊임없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성착취, 여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청년토크 참가자 이름은 익명으로 실는다.

혹시 내 주변에도 있을까?

가방▶ 이번에 공개된 (조 주빈) 모습 봤어?

향수▶ 범죄자의 외모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옆집에 사는 이웃의 얼굴만큼 평범한 겉모습이라 너무 놀랐어.

사과▶ 가해자를 직접 아는 건 아니지만 같은 시기에 학교 다녔었는데 지나가다 마주쳤을 수도 있겠다 싶어. 소름 돋아.

향수▶ 더 소름 돋는 것은 이용자가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지.

고래▶ 내 친구는 너무 불안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자친구 핸드폰으로 텔레그램 설치해서 봤더니 최근까지 접속한 것으로 나와서 절망했다. 근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물통▶ 무조건 텔레그램 자체를 접속했다고 해서 n번방 이용자라 볼 순 없지 않아?

향수▶ 그렇긴 해도 내 주변엔 이용자가 없다고 절대 확신할 순 없으니. 불안의 연속이야.

사과▶ 평소에 열심히 자원봉사도 했다며? 이젠 주변(남성) 지인 자체를 만나기가 무서워.

고래▶ 학보사 기자 출신의 20대. 학점도 높다는데 나중에 모범수로 나오면 어찌지?

물통▶ 그런데 너무 남성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는 거

아니야?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과▶ 사실 이번 n번방 사건도 갑자기 등장했다기보다 그동안 남성 중심 사회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온 성 착취와 성폭력의 연장선이라고 봐.

가방▶ 지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남녀 대결’을 하자는 게 아니야. 일단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발을 방지할 방법을 논의하는 데 같이 힘써야지.

고래▶ 지금까지 성 착취물 자체를 당연하고 안일하게 생각한 문화와 인식이 바뀌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계속해서 알을 까고 번식하는 n번방

향수▶ 사실 단순한 불법 유포가 아니라 피해 여성들 신상까지 같이 공개했다잖아. 생년월일, 집 주소, 전화번호까지.

가방▶ 불특정 다수에게 사냥당하는 느낌일 거야. 실제로 집단 성폭행 암시 댓글도 달렸다고도 하니. 피해자는 하루하루가 지옥이겠지.

고래▶ 공개된 피해자 집 주변 가게에 가서 인증샷 올리기도 한대.

물통▶ 신고하면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사과▶ 조주빈 이후로 공범들 잡아갔긴 하는데 아직 붙잡히지 않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우리가 박사다(박사 힘내

세요)’라는 방을 개설해서 아직도 성착취물을 주고받고 공권력 조종까지 하고 있다더라.

고래▶ 재유포하는 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텔레그램 성착취범죄 보도 때문에 오히려 홍보되었다나 뭐라나. ‘신규’ 회원들 대상으로 다시 콘텐츠들이 거래되고 있네.

물통▶ 어디서 그런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

향수▶ 이 모든 게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언론으로 시끌시끌해도 결국엔 몇 명만 처벌되고 말겠다 믿는 거지.

물통▶ 그리고 한창 n번방 이슈화 연대 활동으로 SNS 해시태그 캠페인 있지 않았어?

#n번방_사건, #n번방사건_이슈화

가방▶ 기가 막히는 것이 아직 붙잡히지 않고 열심히 활동(?)중인 박사들이 불법 성착취 영상 공유하면서 똑같이 캠페인 하고 있더라. #응원메시지 #후원 #artistsbaksa #후원시비밀혜택

사과▶ 응원이라니요. 비밀혜택이라니요...! n번방 가해자 전원의 신상이 공개되어야 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성폭력 가해자들과 함께 살아갈 순 없어.

향수▶ 텔레그램 방에 모르고 들어갔다는 것도 말도 안 돼. 모르고 들어갔다는 사람이 지불도 모르고 한 건가?

물통▶ 그런데 자신들이 가해자인 것은 알까? 디지털은 단순히 눈으로 봤다고만 생각해서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것 같아.

고래▶ 꼭 ‘대가’를 지불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본 관전자도 엄중히 처벌해야 해.

내 일상이 거래되고, 내 일상이 불안하고

사과▶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화장실 불법 촬영, 버닝썬 게이트 등등 입이 아파서 다 말하지도 못하겠는데 솔직히 특별하게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 같아도 이런 사건들, 사실 우리 여성들의 일상 아냐?

가방▶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이 너무 일상적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성 착취적인 성문화가 남성의 성욕을 당연

“성착취가 범죄라는 걸 알지만 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애들(피해자)한테 하는 건 범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애네는 돈 때문에 왔잖아, 노예잖아, 신고 안 할 거잖아, 그렇게 협박하고 농락하는 게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천명의 남성이 범죄에 환호하고 더 수위 높은 영상을 구걸했다. 한 인간의 인격을 살인하는 그 현장에서.”

- 한겨레 [토요판] 커버스토리, '텔레그램 엔(n)번방 취재기' 중

지난해 11월부터 엔번방 범죄 쫓아온 한겨레 오연서 기자 대담 중

시하는 문화를 만든 것 같아.

향수▶ 이런 문화가 성적 학대, 강간 판타지 등을 낭만화시켜 영상으로 만드는데 이런 영상의 재료는 협박과 강간, 불법 촬영이지. ‘불! 법!’

고래▶ 나는 n번방에서 ‘지인능욕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충격받았어. 나도 모르게 나의 지인인 누군가가 내 사진으로 합성을 해서 유포하고, 또는 내 모습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해서 다른 불특정 남성들과 온라인 강간을 한다는 것이 너무 무서워. 이게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

사과▶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에게 일상의 공포인데 누군가에게 일종의 놀이처럼 하나의 문화로 정당화돼서 끊임없이 존재해왔다는 것이 너무 끔찍해.

가방▶ 조주빈 n번방을 악랄하고 굉장히 특이한 사건으로 보는 시각만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안 될 것 같아. 사실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건데 특이한 사건으로만 다루는데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버리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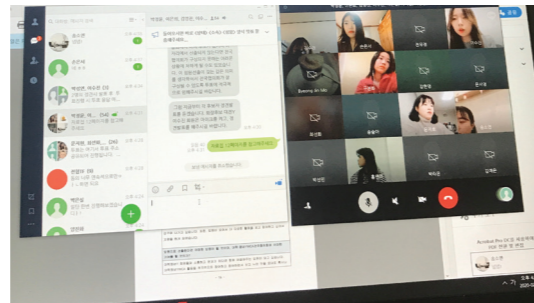
향수▶ 사실 오랫동안 여성을 대상화해온 성문화, 성폭력 이런 것이 해결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지. 이번에는 텔레그램이었지만 다음번에는 다른 어떤 매체로 등장하게 될지 모르지.

고래▶ 중요한 건 매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성문화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란 것을 잊으면 안 돼.

청년조직 내실화 및 지역 청년운동의 활성화

김수진

연합회 대학·청년YWCA 담당 간사



온라인 화상 총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20년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총회가 2월 24일 개최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려로 이번 총회는 각자의 공간에서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됐다. 16개 회원YWCA(거제, 광주, 대구, 대전, 마산, 목포, 서울, 수원, 안양, 여수, 울산, 인천, 전주, 진주, 창원, 청주) 정대표 25명, 방청 대표 12명, 연합회 실무자 2명과 회원YWCA 실무자 14명까지 총 53명이 참가했다. 2019년도 대학·청년YWCA 전국협의회 기획국장 이수진의 개회선언으로 총회가 시작됐다.

YWCA 역사상 처음, 온라인 화상 총회 개최

이번 총회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색다른 사전 준비가 필요했다. 처음으로 온라인 화상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간과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총회를 위해 꾸려진 TF팀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원활한 회의가 가능토록 모든 참가자는 사전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통해 전용 어플리케이션 설치, 단말기와 PC 카메라 구동을 확인했다. 이미 지난 회의부터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실물 자료집은 생략되었기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 PDF 파일로 공유되었다.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모든 참가자가 온라인으로 사전 접속하기 시작했고, 온라인 총회 진행 방법을 숙지했다.

온라인 총회는 의장의 음성과 채팅으로 식순에 맞춰 차근차근 진행됐다. 안전별 투표는 정대표 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하여 구글 설문으로 이뤄졌다. 결과의 투명함을 위해 투표종료 시각을 설정하였고, 투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캡처 이미지를 공유했다. 오프라인과는 다른 떨림과 긴장감 속에서 오히려 참가자들은 보다 더 총회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회원YWCA 청년 조직의 '내실화'와 지역 청년운동의 '활성화'

안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에 YWCA 청

년들에게 온라인 플랫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전국운동주제 채택을 앞두고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이 오고 갔다. 이번 총회에 참가한 YWCA 청년들은 대학·청년 YWCA가 여전히 조직적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역에서 시작되는 단단함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고백했다. 2019년이 회원Y내 대학·청년YWCA 현실에 대해 파악하고,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하는 해였다면, 2020년엔 본격적으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체계적·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한 해이므로 "회원YWCA 청년조직 내실화 및 지역 청년운동의 활성화"가 전국운동주제로 채택되었다.

2020년 임원 선출을 위한 정견발표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사전 연습을 토대로 순조롭게 투표까지 마무리 하였고, 그 결과 대학·청년YWCA 회장은 이수진(대전 YWCA), 기획국장은 송소연(청주YWCA), 소통국장은 손은서(진주YWCA) 회원이 뽑혔다.

이번 총회는 온라인 플랫폼 활용과 멀티 디바이스 활용이 능숙한 청년 세대의 특징을 잘 살릴 수 있었던 행사였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같은 장소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몸을 부딪으며 함께 하진 못했지만 2020년의 대학·청년YWCA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만큼은 풍성한 온라인 총회였다.

여성폭력 추방을 요구하다

문윤희

연합회 중점운동국 성평등 담당 간사



2019년 한국에서 열린 '2019아시아YWCA지역회의'(6.26~29)참가자들이 검은 목요일을 맞아 여성폭력근절 퍼포먼스를 했다.

3월 5일(목) 하루 동안 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 검은 목요일(Thursday in Black)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며 한국사회에 '여성폭력 추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캠페인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 ① 개인 SNS에 접속하여 게시글에 동참하는 한마디를 작성한다. 'YWCA 검은 목요일(Thursday in Black) 온라인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여성폭력 추방과 제도적 해결을 요구하고, 성범죄 생존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 ② 해시태그 #미투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페미사이드를 멈춰라 #YWCA_검은_목요일_캠페인을 입력한다.
- ③ 제공된 이미지 1~2장을 첨부하여 최종 게재한다.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37개 지역 회원YWCA(거제, 고양, 광주, 광명, 김해, 남양주, 남원, 대구, 대전, 마산, 목포, 부산, 부천, 서귀포, 서울, 성남, 세종, 안산, 안양, 양산, 여수, 울산, 의정부, 익산, 인천, 전주, 진주, 진해, 제주,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파주, 포항)와 51개 부속시설에서 참여했다.

한국사회는 2018년 서지현 검사의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폭로를 시작으로 #미투운동이 사회 곳곳에 퍼졌다. 이로 인해 성범죄에 관한 문제 인식이 확산되며 미투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는 등 다양한 사회변화가 이뤄졌다. 한국YWCA도 2018년 3월 8일(목) 한국YWCA회관 앞에서 '3.8

여성의 날 기념 YWCA 행진'을 열어 각계각층 여성들의 용기 있는 성폭력 피해 고발(#미투)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 수사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차별과 폭력, 여성혐오 범죄들이 만연해있다. 특히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이다. 한국 여성들은 여성을 향한 폭력을 멈춰달라고 끊임없이 외쳐왔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당연한 요구는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이에 한국YWCA는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YWCA 검은 목요일 온라인 캠페인을 열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중심으로 #미투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페미사이드를 멈춰라!를 주제로 여성폭력 근절을 요구하고 성범죄 생존자들에게 연대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대면 행사들이 지양되고 있다. 전국 회원YWCA와 시민들도 비대면으로 각자 자리나 사무실 등에서 여성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용납할 수 없음을 'X'자 손 모양으로 표현한 사진, 캠페인에 참여한 사진 등을 찍어 SNS에 공유하며 여성폭력 이슈를 알리고 관심을 독려했다. 'YWCA 검은 목요일 온라인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로 다양한 사회 의제들이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성 이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달의 현장 ②

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 검은 목요일 온라인 캠페인'



①거제YWCA ②고양YWCA ③광명YWCA ④광주YWCA ⑤김해YWCA ⑥남원YWCA
 ⑦대구 남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⑧남양주YWCA ⑨대전YWCA ⑩목포YWCA
 ⑪마산YWCA ⑫부천YWCA ⑬부산YWCA ⑭서귀포YWCA ⑮서울YWCA ⑯성남YWCA
 ⑰세종YWCA ⑱세종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 ⑳안산YWCA ㉑안양YWCA 부속기관



①안양YWCA ②양산YWCA ③여수YWCA ④울산YWCA ⑤의정부YWCA ⑥익산YWCA
 ⑦인천YWCA ⑧전주YWCA ⑨제주YWCA ⑩진주YWCA ⑪진해YWCA ⑫창원YWCA
 ⑬천안YWCA ⑭청주YWCA ⑮춘천YWCA ⑯충주YWCA ⑰통영YWCA ⑱파주YWCA
 ⑲포항YWCA ⑳㉑YWCA연합회

핵발전을 넘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자립으로



최지영

연합회 중점운동국 탈핵 담당 간사

한국YWCA연합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를 맞아 3월 10일(화) YWCA 탈핵 불의날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국YWCA연합회와 전국 42개 지역 회원YWCA(고양, 광명, 광주, 강릉, 거제, 김해, 군산, 논산, 남원, 남양주, 대구, 대전, 마산, 부산, 부천, 파주, 서울, 성남, 속초, 순천, 서귀포, 세종, 사천, 수원, 인천, 의정부, 안산, 안양, 익산, 여수, 울산, 양산, 전주, 진주, 진해, 제천, 청주, 충주, 천안, 창원, 통영, 하남)에 서 참여했다.

온라인 캠페인 참여자들은 회원YWCA 공식 계정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블로그 등 다양한 SNS에 접속한 ‘핵발전을 넘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촉구했으며, 21대 총선을 앞두고 ‘탈핵-에너지 전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선언을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올해로 9년이 지났다. 사고는 일본 동북부 지방에서 진도 9.0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대지진이 원인이다. 진앙지는 동북 태평양, 지진 발생 40분이 지난 뒤 약 15미터 높이의 거대한 쓰나미가 후쿠시마 지역을 강타했고 이때 2만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다음 날 3월 12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1호기부터 3호기, 2호기, 4호기가 차례로 폭발한 것이다.

9년 전, 기후변화 상황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가 핵폭발 사고로 이어진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에게 더 이상 안전할 곳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그리고 사고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수습과정 중이다. 고농도 방사능 위험으로 핵연료를 꺼내지도 못했고, 후쿠시마와 그 인근 주민들은 방사능 피폭에 대한 우려로 고향을 등진 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공기 중으로 방류하려는 계획을 사실상 확정하여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YWCA에서 이민서 청년(대학·청년Y회원)과 오은지 학생(2020 Y-틴 전국협의회 회장)이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 발언문을 작성했다. 이들은 발언문을 통해 “10만 년 동안 보관해야 할 핵폐기물을 만들지도 않은 저희가 왜 책임을 져야 하나요?”, “너는 우리의 안전에 관한 의사 결정권을 타인에게 위탁하고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며 햇빛과 바람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루자고 호소했다.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후쿠시마 핵사고가 끝난 사고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YWCA는 53개 지역의 회원YWCA와 함께 위험한 핵이 아닌, 지구의 햇빛과 바람을 활용하여 탈핵 세상을 이루자는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①순천YWCA 어린이집 ②양산YWCA ③익산YWCA ④인천YWCA ⑤진주YWCA
⑥청주YWCA ⑦창원YWCA ⑧통영YWCA ⑨고양YWCA ⑩대구YWCA ⑪부산YWCA
⑫속초YWCA ⑬세종YWCA

‘40일의 식탁, 내 식비의 1/10을 북한어린이와 함께’


김은영
연합회 중점운동국 평화·통일 담당 간사

한국YWCA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40일의 식탁,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어린이와 함께’ 캠페인을 2020년 2월 26일(수)~4월 11일(토) 기간 동안 진행했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기도문’(어린이용/어른용)을 이용하여 매일 밥상 기도하기, 그리고 내 식비의 10분의 1을 북한어린이를 위한 모금에 참여하기의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기도와 금식, 회개를 통해 나눔과 헌신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새기는 시간이다. YWCA 사순절 캠페인은, 코로나 19의 발생으로 인해 식량난에 더해 취약한 건강 상태로 인한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을 기억하며 기도와 더불어 모금 참여를 독려하는 사회적 십일조 운동이자 북한어린이돕기 운동의 일환이다. 특히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 모금액을 통해 ‘북한에 먼 마스크 보내기’를 진행하였다.

북한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나 사망자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 언론은 “북한에서도 중국과의 국경 부근에서부터 코로나19가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방역 차원으로서 모든 국경 통로를 봉쇄하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을 보이면 30일까지 격리하는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아직 의료 보건 체계가 미약한 나라로써 2018년 기준으로 2만 명이 결핵으로 사망했고, 깨끗한 식수를 구할 수 없는 주민이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북한의 여

성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한국YWCA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빨리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협력 하에 북측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통해 일차적으로 마스크를 전달하였다. 한국YWCA는 이번 2020 YWCA 사순절 캠페인을 통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 체제를 위한 남북의 인도적 지원과 교류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 사회, 한반도를 위한 삶의 결단과 나눔이 YWCA 회원들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 북한어린이 돕기 사업의 일환인 본 사순절 캠페인의 모금은 4월 16일(목)까지 연장 진행된다. 

사순절 특별모금 참여 안내

- 모금기간 : 4월 16일(목)까지
- 계좌번호 : 농협 301-0161-5540-11 한국YWCA연합회
- 입금자명 : 사순절+이름 (예시: 사순절김여성) 표기
- ※ CMS정기후원자께서도 본 특별모금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 온라인을 통한 유권자들과의 소통

연합회 중점운동국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12월 27일 통과된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고 돌발적 인 코로나 사태라는 큰 변수들 앞에서 선택과 변화라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한국YWCA는 총선을 기하여, 시대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들이 조속하게 제도와 정책에서 변화의 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2020-2021년 YWCA 운동정책 과제와 상응하는 총선 정책의제를 구성했다. 지난해 말부터 53개 회원YWCA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된 TF회의를 2차례 거쳤다. 탈핵생명, 성평등, 평화통일, 청년 총 4개 부문에서 13개 분야 38개 항목의 세부 과제를 구성했다. 정책 과제는 2월 각 주요 7개 정당에 배포되었으며, 3월 회원YWCA를 통해 지역 후보자들에게 전달되었다. 유권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알리기 위해 총론편 및 4개 부문의 정책의제를 포함한 5편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를 통해 2월 24일(월)부터 3월 4일(수)까지 2주간에 걸쳐 YWCA 정책의제를 홍보했다. 이어 달라진 선거 상황 이해를 통해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도록 독려할 2차 캠페인도 진행했다.

선거법 개정으로 달라진 선거 상황을 유권자들이 이해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했다. 첫 번째 선거 연령의 하향 조정으로, 약 53만2천 명의 만18세 유권자들이 확대되어 청년 정책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또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서, 지역구 의석 253석을 제외한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하여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한국YWCA는 비례정당을 포함한 9개 주요 정당 정책을 YWCA정책 의제와 비교하여 알리고, 달라진 선거 상황 이해를 통해 올바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4월 7일(화)부터



4월 14일(화)까지 제2차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특별히 서울YWCA는 정당 정책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여 유튜브에 게재하고, 인천YWCA는 대학생 공명선거 캠페인을 온라인에서 전개했다. 많은 회원YWCA들이 정책 의제와 선거 방식을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 투표 참여 독려에도 함께 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극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딛고 치러진 선거인만큼, 정의·평화·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올바른 정책이 반영되고, 시민이 온전한 주인으로서 지역을 살려내는 정치가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 2020 제21대 YWCA 정책의제와 정당별 정책 비교

- YWCA 정책의제와 일치
- ▲ YWCA 정책의제와 부분 일치
- ✖ YWCA 정책의제에 반함

· 순서는 전국통일기후부여 정당순, 그 밖의 정당은 가나다순에 의함.
· 정당 정책의 내용은 4월1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

부문	분야과제	세부과제	YWCA 정책의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탈핵 에너지 전환과 자립 사회	1.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수립	기후위기대응특별법 제정	●		●	●	▲		●	▲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	▲	▲		✖	●			
		탈핵-에너지전환 교육 제도화 마련 및 확대	▲						●			
	2. 핵발전소 안전 강화 정책 수립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					●			
		부실 공사 원전재가동 금지 폐쇄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					●			
	3. 방사능 안전 체계 구축	재난 발생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정책 수립										
		일본산 폐기물 수입 금지 및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체계구축							●			
여성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1. 성평등한 고용과 노동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 공시제' 실시	●		●				●		●	
		'가족돌봄책임 차별금지'법제화					▲			▲		
		국제 노동기구 가사노동자 보호협약 비준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	▲		▲	▲	▲		●		▲	
	2. 성평등한 정치	남녀동수 헌법 개정							●		●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			
		청년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	
	3. 젠더 폭력과 차별로부터 안전한 사회	성폭력·가정폭력을 비롯한 여성대상 신종폭력범죄 처벌강화	●	●	▲	●	●	●	●		●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	▲			●			●			
		인터넷 포털의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책임 및 처벌 강화	●	▲	●	●	●	●	●		●	
		초중고 성평등 교육 의무화							●			
	안전한 임신중지 시스템 마련							●		●		

부문	분야과제	세부과제	YWCA 정책의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민중당	국민의당	녹색당	미래당	여성의당	
평화문화 확산과 평화체제 구축	1. 평화교육과 사회 통합 지원 확대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청소년평화교육 의무화										
		탈북민(제3국 출생 아동 등)의 효율적 지원 체계 마련	●									
		한민족 디아스포라 조선학교 지원										
	2. 여성 평화·통일 담론과 활동 참여 촉진	유엔안보리결의문 1325 국가행동계획의 실질적 이행										
		평화구축 공적 기구에 여성참여 확대				▲						
		일본군 '위안부'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	▲			●						
	3. 대북협력사업 기틀 마련	여성과 아동 등 취약 계층의 인도적 대북 지원 재개	●	✖	●	▲						
		개성공단 및 금강산재개 등 경제교류 방안 마련	●	✖	●							
	4. 평화협정 체결	시민사회와 여성참여 평화관리기구 조항 추가					▲					
	청년의 생존을 위한 청년지원 정책 확대	1. 청년 공간 및 청년 지원 프로그램	청년 정책과 지원 시행 대통령 산하 '청년지원팀' 조직			▲						
청년공간 및 청년지원 프로그램 예산 확충										●		
청년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청년공간 설립 추진				▲	▲			●		▲		
2. 청년 공공주택 정책 개선 및 확대		청년주거포털 정부 운영									●	
		청년주거보장법 제정	▲	▲	▲	▲					▲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정책 개선		실질적 효과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내용 개선										
		청년일자리 종류 확대		▲	●	▲						
		청년일자리 정책·관리 감독 기준 강화										

영화와 드라마, 전염병의 시대를 읽다

김민주
연합회 미디어소통위원

2020년이 전염병의 해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수많은 의학 기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시대에, 이런 상황은 낯설기만 하다. 하지만 재난을 다룬 영화와 드라마에서 전염병은 이미 익숙한 소재다. 영화 <컨테이션>(Contagion, 2011), <감기>(2013), 드라마 <킹덤>(2019-2020)이 대표적인 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작품들에 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필자는 궁금해졌다. 바이러스의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으면서 왜 굳이 비슷한 상황을 또 보고 싶은 걸까. 호기심에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을.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컨테이션>



영화 <컨테이션>
감독 스티븐 소더버그 / 2011 제작

영화 <컨테이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작품이다. 코로나19를 예상이라도 한 듯 영화에 나오는 바이러스의 특징이 코로나19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를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가

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이유다. 영화 속 주인공들도 바이러스를 피하고자 집 문을 걸어 잠그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비극적인 게 없다.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꽃과 함께 애도하러 온 친구에게도 문을 열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은 오랜 시간 지켜온 질서를 한 번에 무너뜨린다. 생필품 사재기가 발생하고, 부족해진 생필품과 치료제를 얻기 위한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이런 일들 모두 현재 뉴스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해외에서 벌어진 사재기 현상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중남미 지역에서는 교도소 폭동 사례가, 상황이 가장 심각한 이탈리아에서는 식료품 절도 사건이 보고되었다.

민주적 국가 시스템의 중요성

영화 <감기>는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분당시.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동남아에서 넘어온 이들이 변종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고, 그들이 탄 컨테이너가 발견되었을 때 모두 사망하고 한 명의 생존자만이 남아있었다. 변종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아주 높았던 것. 하지만 생존자와 접촉한 이들은 자신들이 바이러스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분당 시내를 활보하고, 바이러스는 시 안에서 빠르게 퍼진다.

여기까지는 <컨테이션>과 유사하다. 하지만 <감기>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감기> 속 국가는 무능력하기 짝이 없다.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난 뒤부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해



영화 <감기>
감독 김성수 / 2013 제작

관계를 따지느라 바쁘다. 분당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비감염자와 감염자를 한 공간에 수용하기까지 한다. 결국, 포크레인으로 시체를 끌어올려 치울 만큼 많은 이들이 사망한다. 하지만 한 번 상상해보자.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먼저 생각했다면?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해 비감염자와 감염자를 분리했다면? 다시 말해 민주적인 국가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했다면, 영화 속 분당시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았을지도 모른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다. 확진자 수를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국가, 열악한 의료시스템으로 인해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국가 등 현재 국가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전염병을 키우는 인간의 욕망

바이러스를 다룬 <컨테이션>, <감기>와 달리 좀비가 등장하는 드라마 <킹덤>에서는 전염병의 또 다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바로 인간의 욕망이다.

킹덤에서 전염병이 퍼지게 된 것은 조화주 때문이다. 해원 조 씨의 수장이자 조선을 뒤흔드는 권력을 가진 그는 자신의 딸인 중전 조 씨가 회임을 한 상태에서 왕이 죽게 되자 왕을 좀비로 만들어 살리고 조 씨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시간을 벌고자 한다. 다시 말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욕망이 좀비의 시작이었다.

중전 조 씨는 한술 더 뜬다. 대사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자신의 권력이 위협당하자 궁궐 안에 좀비를 풀어버리고 자신도

좀비에 물리는 결말을 맞는다. 이처럼 비합리적인 판단을 가능케한 그의 비정상적인 권력욕은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는 조화주에게 인정받으려 했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킹덤>에서는 권력을 향한 욕망, 인정을 받으려는 욕망이 좀비 사태를 만들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욕망도 전염병을 키울 수 있다. 봄을 맞아 꽃을 보고 싶은 마음,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 모두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듯이.



드라마 <킹덤>
2019(시즌1), 2020(시즌2) 제작
극본 김은희

전염병 해결사, '영웅'의 등장

두 편의 영화와 한 편의 드라마. 장르도 배경도 내용도 제각각인 작품들이지만 전염병이 해결되는 방식은 비슷하다. 바로 '영웅'이 등장해 전염병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컨테이션>에서는 백신의 빠른 승인을 위해 자신의 몸에 시험 백신을 주사하는 연구원, <감기>에서는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항체를 가진 유일한 아이를 살리는 대통령, <킹덤>에서는 백성만을 생각하는 왕세자까지.

하지만 현실에서 영웅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영웅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오기를 기다리면서 시간을 흘려보낼 바에야 차라리 우리 자신이 영웅이 되는 것이 낫다. 물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자신의 몸에 백신을 주사하자는 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불안할지라도 질서를 유지하고, 하지만 동시에 부당한 것에 항의하며,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게 있을지라도 조금만 참아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곧 다시 가까운 이들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대화를 편히 나눌 수 있을 것이다. 🍷

생명의바람, 세상을 살리는 한국YWCA를 위한 정오기도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한국YWCA’를 위한 정오 기도가 2월 21일(금)부터 9월 20일(일)까지 7개월간 진행된다.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월례기도회를 연기하고 매일 정오기도로 코로나 사태 해결과 한국YWCA 활동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다. 연합회와 회원YWCA 자원·실무활동가들이 정오에 각자의 처소에서 공동 말씀을 묵상한 후 공동 제목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 P.5)

한국YWCA 회관 임시이전



한국YWCA 회관이 3월 16일(월) 나인후르츠미디어사옥(서울 중구 퇴계로)으로 임시이전했다. 1968년에 준공한 한국YWCA 회관이 10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소셜스페이스로 거듭나기 위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 따름이다. 리모델링은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사회혁신기업인 더합과의 마스터리스 계약을 통해 노후화된 한국YWCA회관 건물의 내외부 리모델링으로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새로운 담론을 만들고, 예술과 문화 콘텐츠, 가치지향 소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마스터리스 정기보고회



한국YWCA연합회관 마스터리스 정기보고회가 4월 3일(금)에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다. 마스터리스를 통해 시행

되는 회관 리모델링은 상징성, 역사성, 연결성, 공공성의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1968년 준공 이후 한국YWCA연합회관에서 있었던 한국Y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입구 바닥에 기록하는 등 이 건물의 역사를 기억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와 상생을 지향하는 입주사를 유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명동에서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예술, 문화, 가치지향 소비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 청년 스타트업들을 위한 업무 공간과 커뮤니티 조성 공간이 포함되어 있어 새로 변화될 한국YWCA회관을 통해 세대간 계승과 협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YWCA연합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4월부터 시작해서 9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YWCA 애프터유 캠페인

YWCA는 3월 6일(금)부터 전국 회원YWCA와 함께 ‘YWCA 애프터유 캠페인’을 시작했다. 코로나19의 위기 앞에서 배려와 양보의 마음으로 필요한 이웃과 의료진에게 먼저 마스크를 나누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이어 3월 11일(수)부터 ‘YWCA 애프터유 캠페인 참여 편’을 제작하여 이웃을 위한 배려와 연대의 마음을 품고 나눔을 위한 실천 수칙을 명시해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자세한 내용 P.19)

제21대 총선 대응 1, 2차 온라인 캠페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응하여 YWCA 의제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2월 24일(월)부터 3월 4일(수)까지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이어 4월 7일(화)부터 14일(화)까지 달라진 선거상황, 각당 정책 비교표 및 투표 독려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유권자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정치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하고 YWCA 지향가치가 정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와 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했다. (자세한 내용 P.39~41)

YWCA 검은 목요일(Thursday in Black) 온라인 캠페인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YWCA 검은 목요일(Thursday in Black) 온라인 캠페인’이 3월 5일(목) 전국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되었다. ‘미투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페미사이드를 멈춰라’를 주제로 연합회를 비롯한 전국 37개 회원YWCA가 여성폭력 추방과 제도적 해결을 요구했다. (자세한 내용 P.33~35)

‘YWCA 불의날 탈핵 온라인 캠페인’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를 맞아 3월 10일(화) ‘YWCA 탈핵 불의날 온라인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했다. ‘YWCA는 햇빛과

바람으로 탈핵세상을 여는 후보를 지지합니다’를 주제로 연합회와 전국 42개 회원YWCA가 참여해 탈핵 에너지전환 사회를 이룰 것을 촉구하고 탈핵-에너지 전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선언을 했다. (자세한 내용 P.36~37)

북한으로 면 마스크 보내

한국YWCA는 2월 말 사순절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면 마스크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YMCA연맹,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더불어 중국 공장을 통해 면 마스크를 제작해 지난 3월 25일(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통해 1차로 면 마스크를 전달했다. 한국YWCA는 1천만 원(약 6천개 상당)을 분담 지원했다.


조선학교 지원

한국YWCA는 지난 11월, 일본 내 차별로 무상화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조선학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회원YWCA와 더불어 모금을 진행하였으며, 총 약 580만 원의 금액을 4월 초 치바 조선학교에 지원하였다. 1946년 치바현에 설립된 치바 초중급학교는 현재 학생수 51명, 13명의 교직원



이 있다. 모금액은 노후한 건물의 옥상 펌프 수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Y-틴 중앙임원 온라인 회의

제1차 Y-틴 중앙임원 회의가 3월 13일(금) 오후 2~4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었다. YWCA 운동배우기 자료 발표를 통해 기독, 여성, 청년, 생명, 시민운동으로서의 YWCA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올해 YWCA에서 전개할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임원들은 올해 운동주제인 일본군‘위안부’에 관련된 지역별 카드뉴스 제작, ‘역사 속 여성’을 주제로 한 영상제작,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행동 캠페인을 제안했다.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20. 2. 1 ~ 2020. 3. 31)

기부자명단	금액
배정미, 배창빈, 양영심, 유시춘, 이숙현, 정정화	720,000
2월~3월 모금액	720,000
누계	6,408,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20. 2. 1 ~ 2020. 3. 31)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2020. 2. 1 ~ 2020. 3. 31)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 박지영, 구정혜, 국유택, 권경미, 권순복, 권진, 김가현, 김경숙,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복례,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련,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정린,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남희숙, 돌람수련,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상순,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영순, 박용옥, 박은옥, 박임희, 박지영, 박진희, 박효정,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보람, 백혜진, 손정원,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양종원,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윤혜식,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종숙, 이종영, 이종원, 이주영, 이주영, 이지윤, 이찬형, 이찬진, 이항자,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전하예, 정경란, 정동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장미란, 차경애, 천유란, 채정희, 최수신,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주경, 한혜경, 홍기자, 홍현정, 황홍백	3,375,000
회원YWCA	광주, 대전, 부산, 속초, 창원, 청주, 충주	1,235,700
협력 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선교회, 황간임마누엘교회	260,000
합계		4,870,700

경기지역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민화 작품 전시



고양YWCA 평생교육프로그램 민화반 수강생들은 2월 17일(월)부터 3월 1일(일)까지 한양문고 내 갤러리에서 '한국의 미, 민화' 작품을 전시했다. 강사와 수강생 8명이 '책과 꽃들의 이야기'를 품다라는 제목으로 우아한 선과 고운 색으로 한국 고유의 멋스러움을 보여주었다. 전시 장소를 고려하여 책가도와 화조도 작품을 많이 선보여 조화를 이루었다.

광명YWCA

박문경 사무총장

4.15 총선 관련 활동



광명YWCA는 2월 18일(화) 광명시청에서 광명시유권자운동본부와 함께 '광명시민은 더불어민주당 광명시 갑 낙하산 전략공천을 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4.15 총선 관련하여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 정당공천 배제기준안 발표, 정책제언, 후보자 검증 활동 등을 진행했다.

남양주YWCA

이정은 팀장

어르신 가정 실버시터 보수 교육



남양주YWCA는 3월 20일(금), 3월 23일(월) 실버시터 보수 교육을 진행했다. 실버시터 교육은 지역의 독거어르신, 노부부 단

독가정을 대상으로한 가정방문통합 돌봄서비스, '틈새돌봄'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틈새돌봄 사업으로 총 50가구의 어르신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버시터가 독거노인 가정의 청소, 세탁, 식사 등의 가사활동 지원과 말벗 등의 정서지원으로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남양주Y는 틈새돌봄의 서비스 대상자를 더 늘려갈 계획이다.

성남YWCA

김자혜 주임

EM 비누 만들기



코로나19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개인위생용품이 품절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성남Y 실무활동가들이 손 소독제를 대체할 수 있는 EM비누 만들기를 진행했다. EM발효액을 활용한 다양한 비누를 만들어 자원·실무활동가들과 함께 나누었다. 성남Y는 매년 EM을 활용한 모기 퇴치제, 탈취제 등을 제작, 회원들과 이웃 주민을 대상으로 판매 중이다.

수원YWCA

강은진 주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36차 수원 수요일문화제



수원YWCA 주관으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36차 수원 수요일문화제'가 지난 4월 1일(수) 수원평화비(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수원Y 자원활동가와 수원평화나비 활동가만 현장에서 모이고 다른 회원들은 온라

인으로 동참했다. 오은지 Y-틴 전국협의회 회장의 자유발언과 다양한 공연들로 문화제가 진행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수요문화제'는 매일 첫 번째 수요 일마다 수원시민단체가 돌아가며 주관하고 있다.

안산YWCA

홍지인 팀장

가사지원-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



안산YWCA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기관으로 인증되어 2월 15일(토)부터 4월 18일(토)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40시간에 걸쳐 '가사지원-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표준화된 직업훈련 운영과정을 반영하여 돌봄 노동이 보다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있다.

안양YWCA

신재화 간사

젠더정책과제 공약화를 위한 연대회의



안양YWCA는 3월 19일(목) 안양여성연대가 주최한 <2020 4.15총선 젠더정책과제> 정책공약화를 위한 연대회의에 참석했다. 젠더정책과제로 첫째, 평등한 참정권 요구 둘째, 정당한 노동권 요구 셋째, 젠더폭력 반대 넷째, 평화통일에 함께하기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 제안은 3월 19일(목) 더불어민주당, 24일(화)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자 간담회에서 논의되었으며,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과 가해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제정도 촉구했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교육

의정부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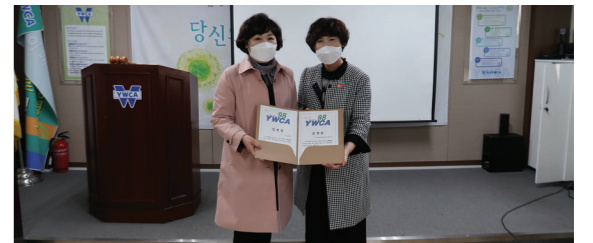
업으로 4월 6(월)부터 17일(금)까지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수강생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인으로서의 마인드 교육과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수강생들은 정리수납전문가 1급과 2급 자격증을 취득해, 정리수납전문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북부지역

동해YWCA

전민지 팀장

사무총장-위원장 임명식



동해YWCA는 3월 24일(화) 동해YWCA에서 사무총장-위원장 임명식을 진행했다. 동해Y를 이끌어 갈 금후자 신임사무총장과 위원장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와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YWCA

성지희 팀장

정책의제별 정당 인터뷰



서울Y는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탈핵' '성평등' '평화통일' '청년' YWCA 4대 정책의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회원YWCA 소식

현장 인터뷰(국민의당 · 녹색당 · 더불어민주당 · 민생당 · 정의당)를 진행했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당 정책을 비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회원과 시민이 정책을 보고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속초YWCA

장은아 간사

자체제작 면 마스크 전달



속초YWCA는 3월 9일(월)부터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마다 자원봉사자와 실무활동가들이 모여 면 마스크를 제작했다. 3월 26일(목) 속초시청을 찾아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전달을 부탁하며 3백 개를 기부했다.

원주YWCA

김민영 간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활동



원주YWCA 이사진은 재능기부와 후원을 모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의 꽃바구니를 만들었다. 이 꽃바구니는 봄을 만끽하지 못하고 애쓰시는 원주시청 코로나 상황실, 원주보건소, 원주소방서, 개인병원 등 원주 내 여러 기관에 전달되었다.

인천YWCA

박희은 간사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출범 및 공약전달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3월 16일(월) 인천YWCA, 인천YMCA,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3개 시민단체와 경인방송이 주축이 되어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출범 및 공약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정치, 경제, 환경, 교육, 문화 주권 등 5가지 분야로 인천주권찾기 시민 제안 공약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그 내용을 전달했다. 공약전달식에 참석한 여야 주요 정당의 후보 대표자들은 실천 협약서에 서약하고 동참을 약속했다. 조직위원회는 선거 이후에도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춘천YWCA

허현주 간사

마스크 기부



춘천YWCA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자 자원활동가들이 재능을 기부했다. 7·8명의 이사가 4일 동안 9시간씩 천연재료로 염색한 면 마스크 3백 개를 만들어 춘천 Y 간병사를 포함한 돌봄과살림 회원, 춘천 시내 미자립교회 두 곳에 전달했다. 코로나19 위협에 놓여있으나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회원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해 YWCA 마스크 나누기 운동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었다.

동부지역

거제YWCA

심은옥 간사

신임실무활동가 교육



거제YWCA는 3월 6일(금) 거제YWCA 강의실에서 본부와

부속시설 신임실무활동가 교육을 진행했다. 본부 1명과 부속시설 3명 총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희향 사무총장이 Y정체성, 목적, 역사 등을 강의했다. 신임 실무활동가들은 지역사회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김해YWCA는 3월 1일(일)부터 12월 31일(목)까지 부산지방고용지청 후원, 김해시 주관으로 'GROW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지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취업 예비교육,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특강 등의 내용으로 지역 여성들에게 재취업 및 창업, 사회참여를 위한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해Y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늘려 지역 고용안정을 이루고자 한다.

대구YWCA

김보현 간사

착한치과 체어 교체



대구YWCA는 지난 2월, 대구Y에서 운영 중인 착한치과의 낡은 의자를 교체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착한치과에 기부를 했다. 착한치과는 뜻 있는 치과의사들의 재능기부로 매주 화요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저소득 및 취약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마산YWCA

한혜경 부장

회장 이취임식

마산YWCA는 2월 18일(화)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손혜원 전 회장(2018.2-2020.1)에게 감사패와 감사선물을 증정하고



이임사에 이어 제29대 김명자 신임회장의 취임사가 있었다. 김 신임회장은 "YWCA 정체성에 부합하는 운동을 지역사회에 적극 알리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임경숙 증경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마산Y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돕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YWCA

박보람 간사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온라인 캠페인



부산YWCA는 3월 5일(목) 부산YWCA에서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구 온도가 1.5°C 상승하는 것의 위중함을 알리고 지금과 같이 미온적이고 안일한 국제사회의 기후대응이나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는 당면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시대를 인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촉구했다. 부산YWCA도 자체적으로 기후위기를 선포하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사천YWCA

정희경 간사

YWCA 탈핵 불의날 온라인 캠페인



사천YWCA는 3월 10일(화) 회관 강당에서 실무활동가들을

회원YWCA 소식

중심으로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 YWCA 탈핵 불의날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아픔을 기억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로 전환을 추구하고 탈핵 에너지 전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양산YWCA

조은진 간사

YWCA 탈핵 불의날 온라인 캠페인



양산YWCA는 3월 10일(화) 후쿠시마 사고 9주기를 맞아 양산YWCA 홈페이지와 실무활동가들의 SNS를 통해 탈핵 불의날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했다. 실무활동가들은 안전한 핵발전소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원전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에 공감하며 미래 세대에게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탈핵 캠페인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

울산YWCA

김예린 간사

시민독서운동 회의



울산YWCA·YMCA 2020 시민독서운동 프로그램을 위한 독서운동회의가 3월 10일(화) 울산 만파식적에서 열렸다. 본 회의에서는 시민 독서운동의 취지를 밝히고, 2020년 독서운동의 주제, 독서 프로그램 진행방법, 독서토론 선정도서 등을 논의했다. 2020년 독서운동의 주제는 '공정과 정의'를 주제로 문학작품, 철학서적, 영화, 고전을 통해 울산시민과 함께 담론화·공론화하는 장이 될 것이다. 함께 읽는 독서가 필요한 시대에 울산YWCA와 YMCA가 시민이 함께하는 독서운동을 이끌어 나가며 울산

지역에 독서의 나비효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여성들의 삶 설문조사



진주YWCA를 비롯한 진주여성단체는 112주년 3.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하여 2020년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월 27일(목)부터 3월 4일(수)까지 진주지역 308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 돌봄 노동은 여성이 더 책임지고 성별임금격차는 여전하며, 여성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는 의견이 많았다. 진주여성단체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4.15 총선을 대비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정책을 각 후보에게 제안하고, 성평등 공약사항을 점검해 성평등한 후보를 지지할 예정이다.

진해YWCA

김미영 부장

지구를 위한 실천행동 #등산 캠페인



진해YWCA는 3월 12일(목) 진해 중원동로 일대에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함께하는 등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기후위기 극복은 미래세대를 위한 최고의 유산이며,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캠페인에 나섰다.

창원YWCA

장은영 간사

2020 이사 여성훈련



창원YWCA는 2월 20일(목)부터 21(금)까지 '2020 이사 여성훈련'을 실시했다. 이채철 목사를 강사로 경남 거창군 팜베리농원에서 성경 속 10명의 여성들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았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성경 속 여성들을 통해 YWCA 여성리더로서의 역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통영YWCA

변은실 팀장

나눔 캠페인



통영YWCA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나눔 캠페인 '하나의 나눔, 두배의 기쁨'을 진행하고 있다. 면 마스크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것으로, 선물을 받은 회원들은 마스크를 하나 더 구매하여 다른 분에게 선물함으로써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마스크 판매를 통해 생기는 수익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할 예정이다. 통영YWCA는 앞으로도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이어갈 것이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진 및 취약계층 지원

포항YWCA는 3월 19일(목) 회장을 비롯한 자원·실무활동가들의 성금으로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삼계탕과 컵과일 2백인분을 전달했다. 또한 무료급식이 잠



정 중단된 포항무료급식소에 생필품키트 1백50상자를 전달했다. "함께하면 극복할수 있습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힘내세요!"란 응원과 함께 나눔의 물결이 퍼져나가길 희망한다.

서부지역

광양YWCA

허수진 팀장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대체식 배달



광양YWCA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인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과 재가도식락 중단으로 결식우려가 없도록 매주 2회(화, 금)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광양YWCA 자체인력으로 대체식을 배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

광주YWCA

윤정순 관장

취약계층에 면 마스크 전달



회원YWCA 소식

광주YWCA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19일(목)부터 일주일간 면 마스크를 직접 제작하여 북구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광주Y 임직원들의 성금으로 제작된 1천 장의 면 마스크는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고령인 마을에 우선 배부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이다.

군산YWCA

신하은 간사

면 마스크 만들기



군산YWCA 여성인력개발센터는 3월 9일(월)부터 20일(금)까지 약 2주간 군산시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면 마스크 만들기 운동에 동참했다. 센터 양재프로그램 강사와 수강생 11명의 재능기부와 실무활동가들의 수고로 마스크 만들기를 진행했다.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운동에 동참했다.

남원YWCA

임진아 간사

YWCA 탈핵 불의날 온라인 캠페인



남원YWCA는 3월 10일(화) 후쿠시마 핵사고 9주기를 맞이하며 YWCA 탈핵 불의날 온라인 캠페인에 동참했다. 핵발전소를 넘어 정의로운 탈핵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담아 SNS에 카드뉴스를 홍보했다.

목포YWCA

곽수현 국장

'검은 목요일 온라인 캠페인'

목포YWCA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3월 5일(목) YWCA



검은 목요일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여성폭력 근절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다짐하며 손모양을 'X'자로 표현하여 여성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용납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퍼포먼스 사진 등을 찍어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회원 및 시민들과 의미를 공유했다.

서귀포YWCA

김수진 간사

코로나 대응 활동

서귀포YWCA는 코로나19 사태로 수고하는 주민센터, 서귀포보건소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했다. 또한 실무활동가들은 마스크를 필요한 이웃에 기부하는 애프터유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다.

순천YWCA

신정옥 간사

결식우려 어르신 방문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어 만 65세이상 저소득 결식우려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급식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에 순천YWCA는 3월 23일(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조곡무료급식소 '해피누리'를 이용하는 115명의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해 마스크, 쌀, 김치, 라면 등이 들어있는 먹거리 상자를 배부했다.

여수YWCA

김예랑 간사

면 마스크 제작

여수YWCA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힘을 보태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면 마스크를 제작했다. 3월 6일(금)부터 23일(월)까지 총 8백20개 면 마스크를



제작해 대구 발달장애인 안심마을, 여수 도서지역,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했다. 면 마스크 제작 자원봉사자 모임은 창업동아리로 조직되어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익산YWCA

김다영 간사

청소년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활동



익산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서는 4월 3일(금) 청소년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및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접촉 활동을 제한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근로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민·관 합동으로 PC방, 노래연습장, 오락실, 룰카페 및 기타 청소년 다중출입 업소 등에서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 및 예방점검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청소년의 감염예방을 위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PC방, 음식점 등 청소년 고용업소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안내 및 방역지침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독려했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전남 영광 한빛원전 폐쇄 촉구 기자회견



전주YWCA는 탈핵 에너지전환 전북연대와 함께 3월 10일(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영광 한빛원전이 노후화로 안전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폐쇄를 촉구했다. 또한 이날 한빛 핵발전소 3호기 격납 건물 외벽이 떨어져 철근 1백80여 개가 노출되고, 구멍과 균열도 잇따라 방사성물질 누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YWCA는 향후 재가동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하고, 전라북도의 대책도 촉구할 계획이다.

제주YWCA

박슬기 간사

후원 물품 전달



제주YWCA는 3월 2일(월)부터 3일(화)까지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제주시내 종합병원 및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음료수와 떡 등의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중부지역

논산YWCA

조아영 간사

YWCA 활동가 연구모임



논산YWCA는 2월 18일(화) 2020년도 자원활동가 연구모임을 진행했다. '소통을 즐기다(안일순 간사)', '논산YWCA 상임위원회 소개(각 상임위원장)', '기후위기 시대, 즐거운 불편을 이야기하다(김희경 간사)'의 주제로 구성했다. 연구모임을 통해 YWCA 활동가로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 속 불편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대전YWCA

안소진 간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활동



회원YWCA 소식

대전YWCA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료급식소 효심정에서도 도시락을 만들어 배부하였다. 또한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이 휴관함에 따라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긴급돌봄서비스를 진행했다. 가정학습 관리를 위한 교재지원, 맞벌이가정 등 식사가 어려운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각 가정에 저녁식사를 배달해주는 도시락배달서비스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도교사들은 아이들을 만나 하루에 한 번 체온체크 등 건강체크를 진행하며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종YWCA

양유정 간사

세종YWCA 어린이집 7세 졸업식



세종YWCA 어린이집은 2월 20일(목) 세종YWCA 어린이집 강당에서 7세 가운반 졸업식을 진행했다. 이번 졸업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원아들만 참석케 했으며, 부모들과는 포토존에서의 사진 촬영으로 졸업 분위기를 느끼도록 배려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마스크 전달

제천YWCA는 3월 23일(월)부터 31일(화)까지 거동이 불편하여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 재가어르신 74명과 일선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재가방문요양보호사 35명에게 면 마스크 총 240개를 전달했다.

천안YWCA

박미숙 팀장

의료진에게 도시락 전달

천안YWCA는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천안의 의료진들을 위한 도시락을 마련, 천안시청을 통해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의 보건소, 응급지원센터 등의 의료진에게 전달했다.



청주YWCA

한기연 간사

면 마스크 만들기



청주YWCA는 3월 13일(금) YWCA 애프터유 캠페인의 일환으로 면 마스크 만들기를 진행했다. '면 마스크 만들기'는 의료진의 마스크 부족 상황 속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스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실무활동가부터 일회용 마스크 사용을 자제하고 면 마스크를 사용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하고 있다.

충주YWCA

이예림 간사

신임실무활동가 교육



충주YWCA는 2월 19일(수) 충주YWCA에서 신임실무활동가 교육을 진행했다. 목적문 이해, 중점운동, 역사, 정체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교육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교육 이후 부속 시설을 방문해 부속시설의 역할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받았다. 실무활동가 교육을 통해 활동가의 기본적인 자세와 역할을 숙지하는 시간이 되었다.

2020년 2월 1일부터

자궁, 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이하로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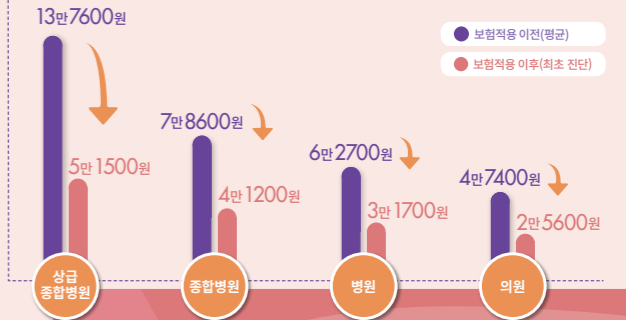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됩니다.

*정밀 초음파 대상 환자 연 1회, 시술·수술 후 효과판정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인정
※ 단,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

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부담 변화 (진단(일반) 초음파 외래 기준)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콜센터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http://medicare1.nhis.or.kr> 에서 더 자세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확인하세요.